

칠곡 이태원길,

객사의 길을 그리다



窓舎

대구광역시 북구 이태원길에 입혀지는 공공미술



칠곡 이태원길,

객사의
길을 그리다

칠곡 이태원길,

객사의 길을 그리다



목 차

1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4P
	- 행복북구문화재단 축하	5P
	- 행복북구문화재단 이사장 축하	6P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축하	7P
	- 소설가 이태원	8p
2	공공미술 <칠곡 이태원길, 객사의 길을 그리다>를 준비하며	10P
	- 이태원길에 대한 나의 단상	11P
	- 이태원길에서 만들어갈 관계들	12P
3	공공미술프로젝트 작품모음	14P
4	소설 객사 드로잉프로젝트	126P
5	주민참여 프로그램	136p
	- 이태원 길을 잇다	136p
	- 나만의 선인장 만들기	140p
	- 리사이클 화분 만들기	142p
	- 작가와 함께하는 이태원길 만들기	144P
6	문화공간조성 객사 드로잉展	146P
7	Artist profile	148P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철곡 이태원길의 조성

문화예술거리 '이태원길'은 지역의 문화적 재생과 문화원형자원 활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명소로써 복구를 알리고 생활문화의 거점으로써 지역민을 위한 주체적 문화창조의 공간,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가꾸어 나갈 것이다.

철곡 3지구 중심상권 지역이 화려한 불빛이 빛나는 곳이라면 그 뒷골목은 쓰레기가 넘쳐나고 청소년들이 모여 담배 피우는 곳으로 인식되어 온갖 범죄의 온상인 지역으로 치안 사건이 매년 200건 가량¹ 발생하는 지역이었다. 이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고자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을 기획하였다. 이후 철곡 지역 태생인 천재소설가 이태원의 이름으로 명명하여 의미를 더했다.

보행자 전용도로로 만들어졌으며 이태원문학관, 2개의 광장(이태원광장, 팔거광장), 그리고 4곳의 버스킹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설계하였다.

이태원문학관에서는 지역 천재 소설가 이태원을 기리는 공간으로 그의 생애와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2개의 광장과 버스킹 공간은 지역민이 언제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이에 더해 이번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이태원길을 문화예술거리답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문화예술거리 이태원길은 주민과 함께 만드는 거리, 주민이 즐기는 거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대구광역시 행복복구문화재단

인사의 글

안녕하십니까? 행복북구문화재단 이사장 배광식입니다.

2020년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의 공연과 전시가 취소되면서 예술인들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술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 판 문화 뉴딜 정책인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계획하였고 우리 북구는 미술가, 예술가 37명이 힘을 모아 이태원길 일원에 벽화, 조각 등 28개의 작품을 설치하고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이 직접 꾸미는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번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통해 예술가들에게는 창작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일상에 거리에서 다채로운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주어 모두가 상생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인과 지역민의 상생을 통해 소설가 이태원 선생을 재조명하고 치유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장소 선정부터 작품 유형까지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특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리사이클링 아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과 소통·공감의 장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예술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더욱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위해 애써주신 작가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염병으로 지친 예술인과 지역민에게 치유의 기회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북구문화재단 이사장 배광식

축 사

안녕하십니까?

북구의회 의장 이동욱입니다.

먼저, 행복북구문화재단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결과전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정성을 기울여 오신 행복북구문화재단 이태현 상임이사님, 이재진 문화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천재 소설가 이태원 작가를 기리기 위해 조성된 '문화예술거리 이태원길'. 흔히 철곡3지구로 불리는 이곳은 대구 내에서도 가장 젊은이들이 많은 심장과도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청년들의 외부활동은 위축되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긴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젊고 활기로 가득 찼던 공간이 어느 도시보다 조용한 곳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발걸음을 다시 되돌리고 인근 상인에게는 웃음을, 지역민에게는 활기찬 거리를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던 중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사업입니다. 지역 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창작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장소마다 예술작품들을 전시하고, 거리를 통일감 있게 디자인하여 이태원길 일대가 지역문화예술의 중심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업 지역이던 이태원길은 이제 일상 속 예술이 있는 문화공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이태원길이 생소한 북구민도 있습니다. 새로 맞이한 공공미술 작품을 시작으로 지역민에게 소설가 이태원을 널리 알리고 예술과 창작의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후대에는 지역 문화의 저변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되며, 우리 북구의회에서도 잠재된 지역의 우수한 문화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난히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예술가들과 지역민들에게 꽃내음 무성한 계절이 도래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이동욱

소설가 이태원(李台元)

-역사의 물줄기에 인간의 발을 담그는 작가-

소설가 이태원은 1942년 북구 읍내동에서 태어난 칠곡이 배출한 소설가로, 1955년 칠곡초등학교 졸업, 1958년 경북중 학교졸업, 1961년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1970년 동아일보 장편소설 공모에 <객사>가 당선됨으로써 중앙문단에 등단하였으며, 대표작 <객사>는 국립극단과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TBC)에 3.1절 특집 드라마로 제작하여 방영된 유일무이한 작품입니다. 그 외 주요작품으로는 <개국>, <초야>, <낙동강> 등 30여 편이 있으며, 중앙 문단에 진출 후 민주화와 인권 향상에 대한 문인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소설가이자 운동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2009년 3월 8일 67세에 짧은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 대구 행복북구문화재단 홈페이지 발췌

이태원(李台元, 1942 - 2008)

소설가 이태원은 경북 칠곡 출생으로 군 제대 후 노동자생활을 하던 중 1970년, 동아일보 50주년 기념 장편소설 현상공모에 <객사(客舍)>가 당선, 이후 많은 역작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고등학교시절 이미 공모전에 단편소설이 당선될 정도의 문학적 재능이 발휘되었지만 4.19때 가산이 무너지고 가족과 뿔뿔이 흩어지면서 집안의 만아들로서 생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군복무를 마친 뒤, 장돌림이나 잡역부의 생활을 하며 밑바닥 삶을 살게 되지만 한편으로 차근차근 끊임없이 자신만의 문학적 기틀을 잡아갔습니다.

이후, 1970년, 소설 '객사(客舍)'를 통해 중앙문단에 등단하게 되는데, 1975년을 기점으로 인권 탄압 시대에 작가들이 항거하면서 만든 자유실천문인협회에 가입, 고은, 이호철, 이문구, 박태준, 황석영 등 여러 문인들과 함께 민주화 운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더 큰 안목으로 한국의 역사를 마주하게 되고 이후 수많은 역사소설을 집필하게 됩니다. 1978년 그는 대하소설 '개국(開國)'을 대구매일신문에 연재했고, 1980년대에는 대하소설 '낙동강'을 연재하는 등 수십 편의 주옥같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는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원과 국제PEN클럽 회원으로도 활동하며 다양한 작품들을 연이어 발표합니다. 그의 작품은 특히 근대 대구 지역의 밀도 있는 공간 묘사와 오랜 시간 지나온 지역의 언어들을 보석처럼 다듬으며 자신의 고향인 칠곡의 과거와 한국의 근현대 인간 군상들을 가감 없이 그려낸 수작들을 남겼습니다.

공공미술 <칠곡 이태원길, 객사의 길을 그리다>를 준비하며



이태원길에 대한 나의 단상(斷想)

‘이태원 길’은 대구 칠곡 지역 출신, 천재 소설가 이태원작가의 이름을 담은 문화예술거리입니다. 작가의 고향이자 대표작 <객사(客舍)>의 무대이기도 한 이곳에서 작가를 회상하고, 문학의 흔적과 발자취를 기리고자 이태원 길이 조성되었습니다. 소설가 이태원 콘텐츠와 지역민,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문화거리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이태원길은 칠곡에서 가장 변화한 지역으로 유흥가 혹은 숙박업소 등이 많은 상가밀집지역입니다. 이러한 공간에 문학 혹은 문화의 옷을 입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이 일게 합니다. 이태원 문학관이 있는 이태원길에서 그의 문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 길을 걸으며 상상할 수 있는 공간조성에 본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에 대해 잠시 고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이태원길이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담긴 문학 혹은 이태원작가를 상징하는 도시(거리)이미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만들어진 이 길은 지역민이나 다수 계층들의 다양한 문화가 입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태원이 있고 그의 문학이 담기며 나아가 지역민들의 다양한 문화가 유기적으로 생성되는 것에는 아직 의문입니다. 무엇이 현재의 이태원길을, 우리 지역을, 우리 도시공간을 더 나은 삶으로서의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요? 통속적인 상권 밀집 지역을 어떤 공공미술이 단번에 그 분위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지역과 상충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길의 가능성을 열고 지역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다수의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의 공간으로 나아가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공공미술이 이 길에 놓여지고, 그 결과물들이 시민들에게 향유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아직은 우리 작가들의 작품들이 어떤 이야기를 도출해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이것’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공공미술이 앞으로의 방향에 어떤 의미를 더 줄 것인지, 또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낼 것인지는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닐까합니다. 공공미술은 작가의 것만이 아니라 이를 향유하는 모든 이들의 것이기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누리며 함께 가지고 가야한다는 생각으로, 이 거리가 함께 나누는 문화의 공간이 되어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기획자 김병호

이태원길에서 만들어갈 관계들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공미술’이라는 단어를 본 즉시, 공공장소에 설치된 ‘보기 좋은 조형물’ 또는 어느 낙후된 지역의 담벼락에 그려진 ‘알록달록한 벽화’를 떠올린다. 단순히 예쁜 조형물과 벽화만으로는 ‘본질적인’ 공공미술을 정의하고 지칭하기에는 그 범위가 매우 좁고 한정적이다. 서두에 밝히자면, 공공미술은 관계적 미술이다. 때문에 특정 장소와 시각 예술 그 사이의 관계적 균형이 무척이나 중요한 예술 또는 미술이다. 하지만 지금 동시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공미술들은 그 관계의 균형을 바로 가지지 못해, 상당수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 미술이 구성되는 관계들을 살펴보자. 미술계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분야의 관계들이 조우한다. 가장 먼저 ‘작가’가 그 첫 번째이다. 작가는 작품을 제작한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기관’이 있다. 기관은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를 선정,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장소를 방문하는 시민이자 ‘관객’이다. 관객은 작품을 관람하고 나아가 작품을 매개로 작가와의 소통을 이루기도 한다. 이러한 세 구성원의 관계가 모여 (공공)미술계를 구성하는데, 이 관계들 간의 미묘한 불균형으로 인해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기획되는 단계의 선하고 좋은 초기 의도와 달리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작가, 기관, 관객에서 ‘관객’은 몇몇의 개인에서 다수의 시민 또는 대중으로 확장되고, 기관은 갤러리나 미술관과 같은 전문 공간에서 국가기관으로 확장된다. 문제는 작가이다. 작가는 확장된 두 분야의 관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해야만 한다. 기관은 대중을 위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적인 열세에 몰린 작가는 이러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이제 문제는 서서히 커지기 시작한다. 작가는 자신의 ‘예술가적 신념’은 일반적인 대중의 미감 또는 예술에 대한 이해도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난해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에 그것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 어렵다. 단순히 대중의 일반적인 취향에 맞춰 작업하기를 요구받기에 그의 작품은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는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단순히 도시 경관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결과물 또는 조형물로서 예술적 의미를 잃은 채 배회하게 된다. 그렇다면 작가들의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좋은 공공미술이 될까. 하나의 예를 들자면 리처드 세라의 <기울어진 호(1981)>가 있다. 뉴욕 맨해튼의 페더럴 플라자 광장에 설치된 거대한 작품(가로 37m, 세로 3.7m, 두께

6.4cm)은 장소특정적 미술(Site-Specific Art)이 가지는 형식과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지만, 뉴욕 시민들은 그들의 일상을 방해하는 구조물로 여겼다. 작품을 옮기기 위해 재판까지 갔던 이 작품은 결국 해체되어 한 창고로 옮겨진다. 이렇듯 미술사적 가치가 가득한 작품도 결국엔 공공성을 해치게 된다면, 공공미술의 의미를 잃게 된다.

이제 예술성과 공공성의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균형을 절묘하게 맞춘 《이태원 길 프로젝트》를 기획한 여러 관계자들과 작가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프로젝트를 세부적으로 기획, 진행한 니나노협동조합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인 만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쏟았고, 그와 더불어 행복북구문화재단이 제안한 ‘이태원 길’이라는 주제 역시 잘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이번 《이태원 길 프로젝트》는 첫걸음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소설가 ‘이태원’과 그의 소설 ‘객사’라는 주제를 던지는 것 외에는 작가들의 창작 방향에 커다란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제작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 역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멋진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 또한, 문학이라는 장르와의 융합을 꾀하며 ‘이태원 길’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 앞으로의 이태원길은 시각예술만을 넘어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모이는 거점으로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공공미술은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계획하는 장기 프로젝트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짧은 시간 동안 급하게 기획, 제작, 설치 모든 과정을 해내야 하는 바로 눈앞의 성과에만 방점을 둔다면 먼 시간 이후의 그 사후관리 문제 또는 작품 훼손 등의 문제로 또 다른 주민 혹은 시민과의 갈등을 마주할지도 모른다. 이는 앞서 진행되었던 여러 도시의 프로젝트에서 확인된 바 있다. 공공미술이 현대사회에서 도시 재생의 한 요소로 그 중요성을 주목받은 지 50년이 넘는 시점이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다양한 관계들이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만큼 아직도 ‘공공미술’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공공미술은 현재진행형이며 우리 사회가 함께 관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작가, 기관, 관객) ‘이태원길’이 공공미술의 성공적인 사례로 오랫동안 남기를 바란다.

북구 공공미술프로젝트 참여작가(비평) 박천, 이지인

공공미술프로젝트 작품모음



Artwork archive caption contents

<Happiness> 1200x1200x2000cm : 광라온

<이태원 커뮤니티아트 시리즈> 가변크기 : 구주립

<문학에 쉬다> 2400x2400x4000mm : 김명환, 손영복, 박상훈

<sweet people> 1100mm x 500mm x 1100mm : 김수미

<MEMORY> 800x400x1600mm : 김재은

<은행나무> 가변 : 김형철, 장재혁

<Die in a Strange Land> 500x500x1800mm : 나동석

<스카이로드> 가변설치 : 배규희, 최희진

<이응의 서가> 900x400x1800mm : 배은경, 변수영

<문학에 쉬다2> 3500mmX450mmX400mm : 손영복, 유휘금

<소풍> 좌대- 400x1000mm, 조형- 500x600mm : 신주현

<객사(客使): '나그네가 쉬어가는 집' > 1500x600x1150mm : 윤광웅

<밤에 내리는 글> 4500mm : 이경희

<우리들> 500x500x1600mm : 이민순

<그리움> 500x500x1600mm : 이상현

<글로 가는 길> 1050x30x1500mm : 이원오

<이태원 기념비> 100x800x2000mm : 이은재

<운율안에 그대 기억> 400x400x1600mm : 이호우

<이태원길 모험도> 2000x3000mm : 인총엄, 홍종기

<과거-현재-과거> 1040x6400x1740mm : 정민규

<도남동 느티나무> 1160x760x96mm : 최수환

<사랑하는 너와 함께> 2000x2000mm내외 (가변) : 최영지

<문학에 쉬다 3> 1800X1200X450mm : 최현석

<안녕 난 이태원의 요정> 600x600x1500mm : 한수민

<우리는 무엇을> 3000x1100x150mm : 한승재, 김도경

<흐르는 길> 40m x 3m : 여무웅, 유휘금, 임부열, 황현호

<책가도(冊架圖)> 660 x 1950cm. 원안 : 김병호 작화 : 유휘금, 임부열, 황현호, 여무웅 & 니나노프로젝트예술가협동조합

이태원 문학관 외벽 컨테이너 벽화 <객사> 300x1800cm : 유휘금 & 니나노프로젝트 예술가협동조합

<이태원 조형물> 200x155x130cm : 손영복 & 니나노프로젝트예술가협동조합

Artwork archive – Special works



<책가도(冊架圖)> 660 x 1950cm. 원안 : 김병호 작화 : 유취금, 임부열, 황현호, 여무웅 & 니나노프로젝트예술가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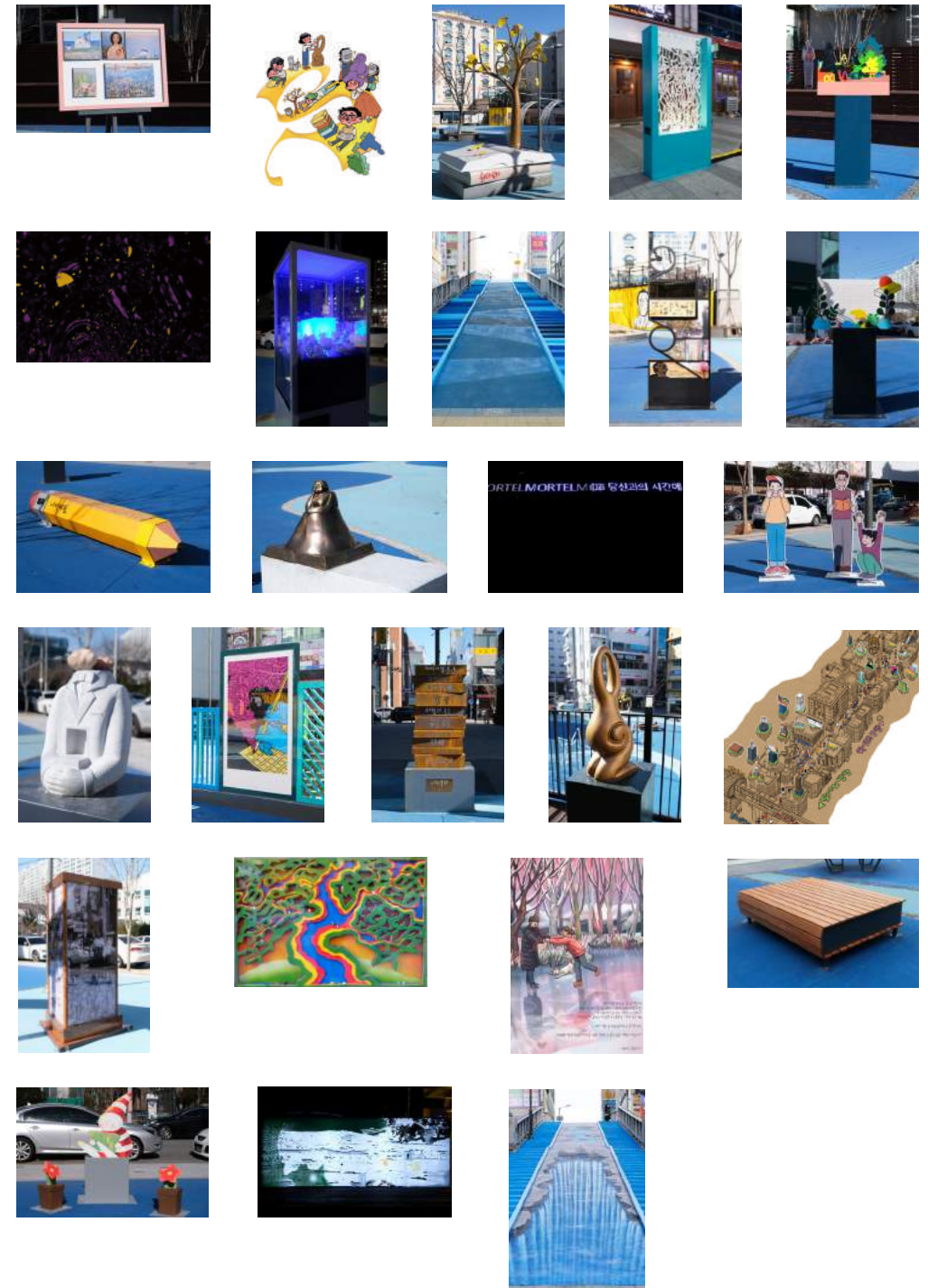


<이태원 조형물> 200x155x130cm : 손영복 & 니나노프로젝트예술가협동조합



이태원 문학관 외벽 컨테이너 벽화 <객사> 300x1800cm : 유휘금 & 니나노프로젝트예술가협동조합

Artwork arch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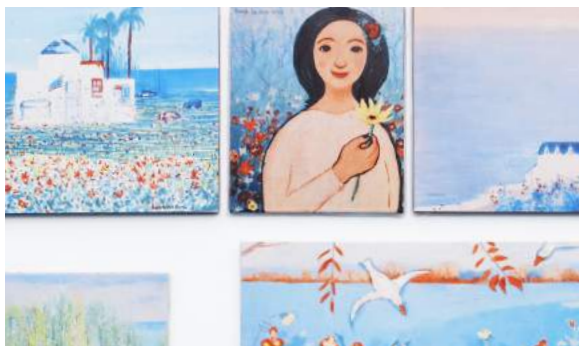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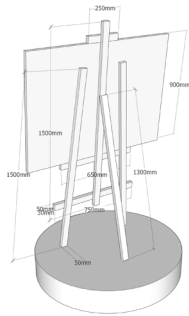
<Happiness> 1200x1200x2000cm : 곽라은

Happiness

곽라은



소설가 이태원의 문학 속에서 그 시대의 아픔을 함께 겪고나누어온 사람들을 기억하며 이 작품은 앞으로 새롭게 맞이할 여정에 희망과 행복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기념해 새기고 싶은 '행복'이라는 감정을 그린 다섯 개의 그림을 하나의 이젤에 걸어 보여주는 설치 작품이다. 외부 환경의 조건과 변화에 민감한 유화 작품을 내구성이 좋은 도자기 타일에 다시 옮기며, 야외의 거리에서도 이젤에 놓인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작가의 사려 깊은 고민과 관객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스테어스



<Happiness> 작가 인터뷰

- 곽라은 작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화 작업을 하는 곽라은입니다.

<happiness> 는 어떤 작품 인가요?

제 작품의 이름은 'Happiness' 구요. 이태원 작가의 소설을 바탕으로 제 작업과 결합을 시켜서 행복한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소감은?

대구 칠곡에 대해서 이태원 작가가 소설속에 담아낸 이야기를 보면서요, 예전의 칠곡과 현재의 칠곡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많이 높아졌습니다.



<happiness>
인터뷰 영상 URL



<이태원 커뮤니티아트 시리즈> 가변크기 : 구주림

이태원 커뮤니티아트 시리즈

구주림



칠곡 이태원길,

객사의 길을 그리다



<이태원 커뮤니티아트 시리즈> 작가 인터뷰

- 구주림 작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캐릭터 일러스트와 타이포 등을 작업하고 있는 구주림입니다.

<이태원 커뮤니티아트 시리즈> 는 어떤 작품 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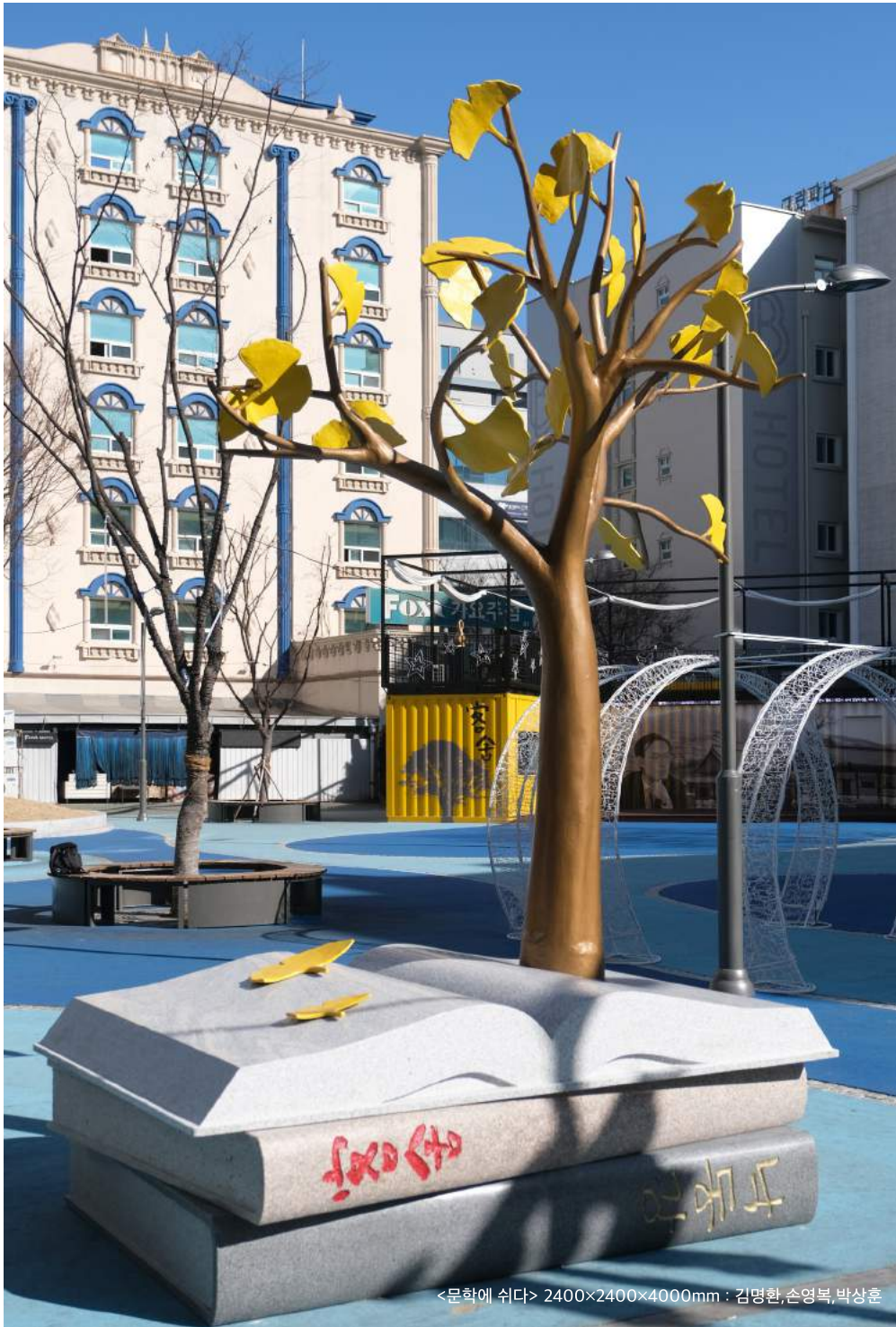
이번 프로젝트에서 작가님들의 작품들이 이태원의 세계와 현재 우리들을 연결시켜 준다는 것에 중점을 잡고 작업을 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소감은?

이번에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대구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소설가 이태원이 말해 왔던 우리 민족의 '정서'와 '열'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계승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커뮤니티아트 시리즈>
인터뷰 영상 URL



<문학에 쉬다> 2400×2400×4000mm : 김명환, 손영복, 박상훈

문학에 쉬다

김명환, 손영복, 박상훈



소설가 이태원 작가의 작품 '객사'에 등장하는 은행나무를 형상화하여 표현한 조각 작품이다. 은행나무는 최고의 관상용 나무이며 4계절 내내 형형색색 아름다운을 지니고 있다. 이 나무를 선생을 기리는 비목(碑木)으로 보존되기를 바라며, 작품을 통해 시민들에게 잠시의 여유를 줄 수 있으면 한다.



문학에 쉬다'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으로, 이태원 작가의 소설 '객사'에 묘사된 은행나무를 형상화 한 조각 작품이다. 작가의 소설책을 토양과 양분 삼아 자라난 이 나무는 춥고 더운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그 자리에 서서 노랗게 피어난 은행잎을 보여주며 소설가 이태원과 그의 작품을 추억할 수 있게 해주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스테어스



<문학에 쉬다> 작가 인터뷰

- 손영복 작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공미술사업에 참여한 조각가 손영복 이라고 합니다.

<문학에 쉬다>는 어떤 작품 인가요?

소설가 이태원 작가의 작품중에 '객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객사에 등장하는 은행나무를 형상화한 작품인데요. 은행나무는 사람에게 이로운 뿐만 아니라 사계절 형형색색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죠. 이태원 작가의 비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만들었구요. 현재 실제 은행나무는 침묵 향교에 아직도 건재히 자라고 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소감은?

어려운 시기에 좋은 프로젝트가 생겨서 이 사업에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 미술 사업이 현재는, 부족한 점들도 있지만 예술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에 작품이 들어옴으로서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학에 쉬다>
인터뷰 영상 UR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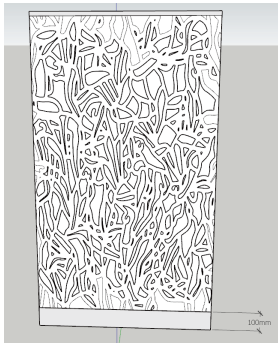
<sweet people> 1100mm x 500mm x 1100mm : 김수미

Sweet people

김수미



삶은 나로부터 시작하여 너에게로 그리고 우리에게로 이어지며 더불어 함께 만들어진다. 이 작품은 이태원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형상과 형상을 이음으로 인해 모든 인간들 사이에 이어진 관계성을 긍정하고 포용하며, 더불어 살아가고자 했던 옛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고자 한다.



글자를 이루는 자음과 모음 그리고 소설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과 사물 등을 형상화해 보여준다. 김수미 작가가 오랜 시간 동안 다루어 온 개념 조각의 아이디어를 계속해 이어 나가는 작품 중 하나로 전시장이 아닌, 거리에 놓이며 작가와 그에게 새로운 영감을 준 이태원이 관객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경험이 되고 있다.

-스테어스



<sweet people> 작가 인터뷰

- 김수미 작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면 회화와 설치작업을 하는 김수미 라고 합니다.

<sweet people>은 어떤 작품 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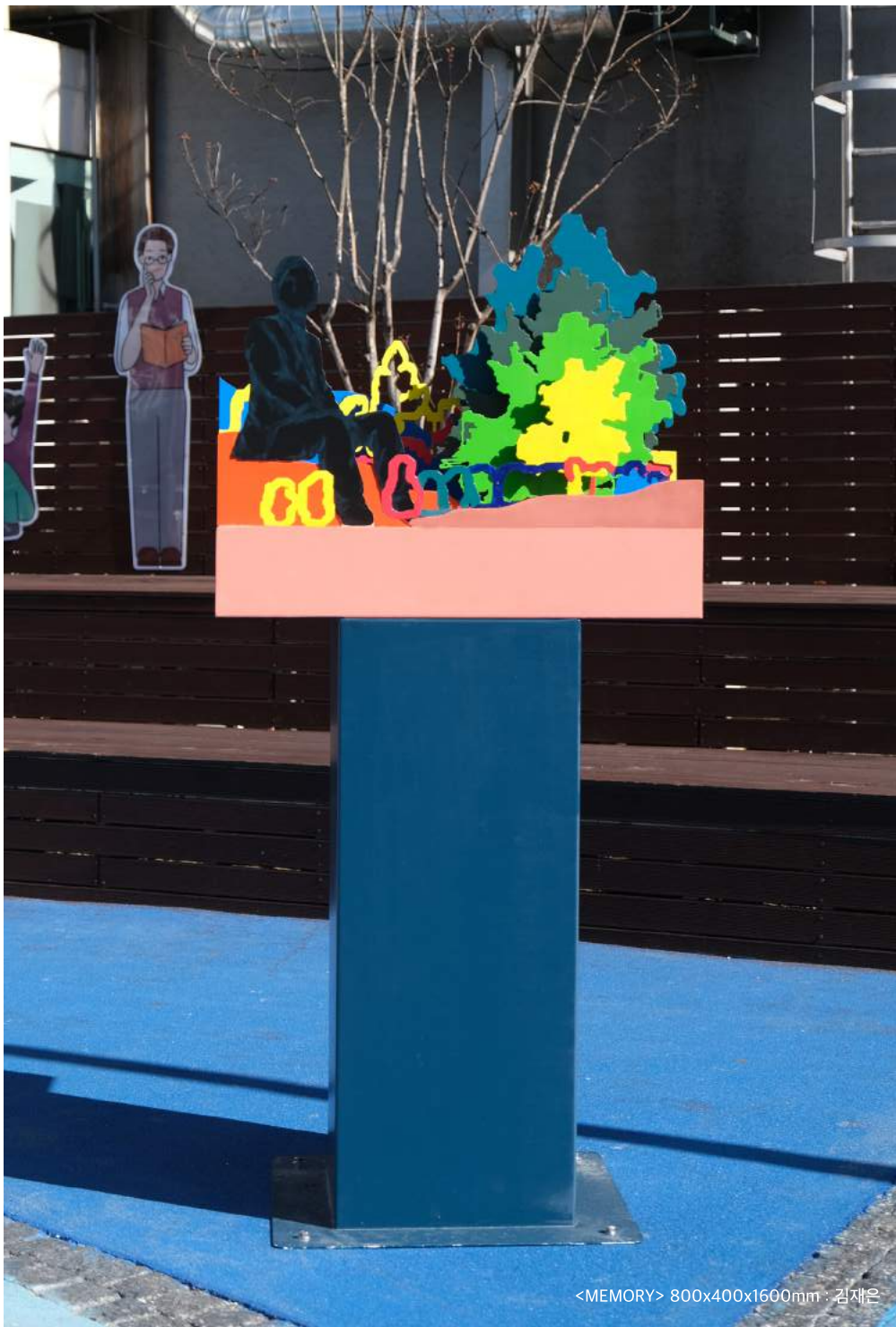
이 작품은 인체의 형상을 이미지화한 작품인데요. 이태원 소설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형상화한 작업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소감은?

이태원 거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 작가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점이 너무 뜻 깊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태원 거리와 이태원 작가가 조금 더 널리 알려지고, 여기 칠곡이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weet people>
인터뷰 영상 UR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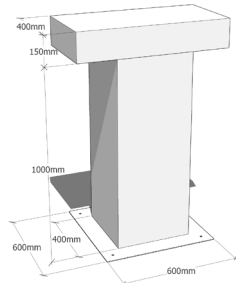
<MEMORY> 800x400x1600mm · 김재은

MEMORY

김재은



이태원 작가의 대표 작품 '객사'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은행나무'가 있는 풍경을 재구성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겪은 아픔을 이겨냈기에 지금이 있음을 되새기며,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작품을 통해 밝은 미래와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면 한다.



각각의 평면으로 제작된 그림을 여러 겹 쌓아 보여주며 더욱 입체감과 깊이 감 있는 한 장면의 풍경을 구성했다. 'MEMORY' 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아픔을 겪은 시간과 시대를 통해 바로 지금이 있음을 다시 되새기며, 그 시간들을 잊지않고 기억하길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있다.

-스테어스



<MEMORY> 작가 인터뷰

- 김재은 작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면회화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김재은이라고 합니다.

<MEMORY>는 어떤 작품 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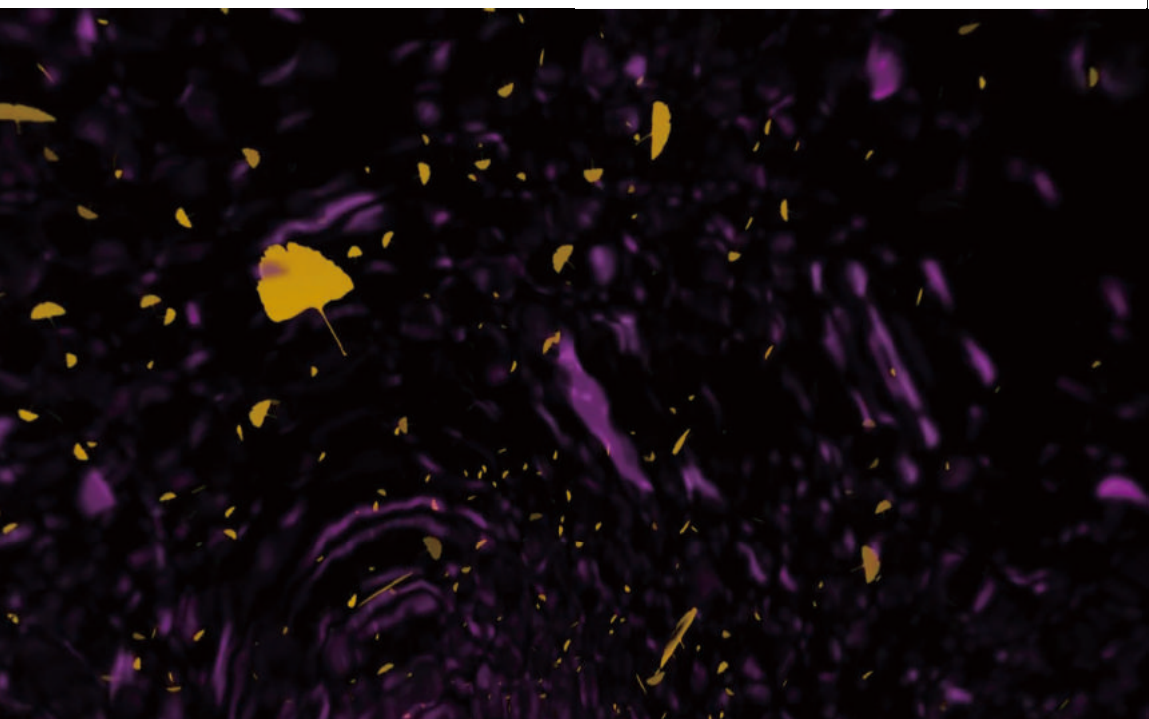
이태원 소설가랑 객사에 나오는 상징적인 은행나무가 같이 나오는 풍경을 표현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소감은?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문화의 거리라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서 뜻 깊은 프로젝트 참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조금 더 문화의 거리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EMORY>
인터뷰 영상 UR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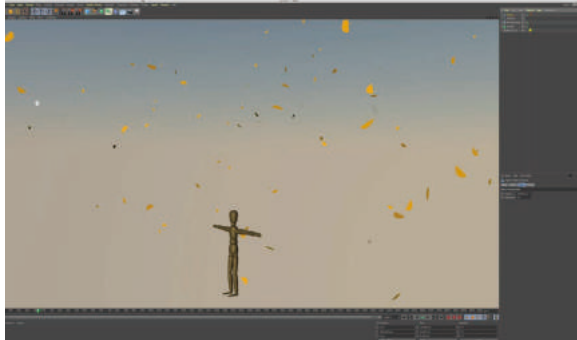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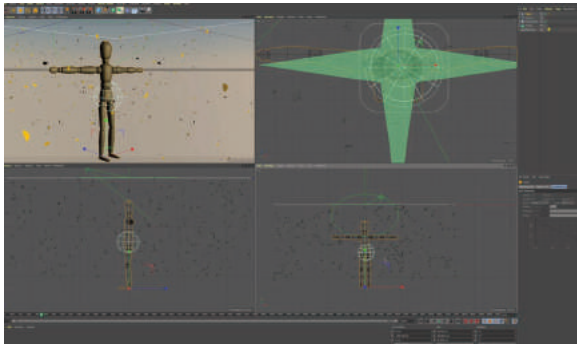
<은행나무> 가변 : 김형철, 장재혁

은행나무

김형철, 장재혁



무수히 끝없이 떨어지는 이 은행나무의 잎은 마지막 잎새가 없다.
우리 마음속의 이태원 작가는 그렇게 끝없이 영원하게 우리 곁을 지켜준다.



모션 그래픽과 VR 기술, 사운드 디자인 등의 기술을 통해 소설을 기반으로 제작된 가상현실을 체험이 가능하도록 만든 이태원의 문학을 가장 최신의 기술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단순히 그가 만든 작품을 아카이빙 하는 것을 넘어, 그의 문학에 쓰인 문자와 텍스트를 이용한 다양한 타이포 그래픽과 함께 소설이 만들어낸 또 다른 세상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작품이다.

-스테어스



<은행나무> 작가 인터뷰

- 김형철 작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대구에서 활동 중인 작가 김형철 입니다.

<은행나무>는 어떤 작품 인가요?

이번에 이태원 작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니 은행나무라는 코드가 인상이 깊었어요. 관람객들이 재미있는 체험을 할 수 있게, 기억에 남을 수 있게 한 순간이라도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저는 은행잎이 떨어지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소감은?

(이태원길의 문화적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주변 현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본다면 재미난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좀 더 성장을 시켜주는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고, 환경이 되는게 아닐까.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나무>
인터뷰 영상 URL



<Die in a Strange Land> 500×500×1800mm : 나동석

Die in a Strange Land

나동석



이태원 작가의 가장 대표작인 <객사>에 영감을 받고 제작을 하였다. 객사에서 묘사되었던 그 당시 조선인들의 설움과 고통,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나만의 방식으로 근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죽음은 객사(客死)와 다름없었으리라. 나는 이 작품이 그들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들을 조문하는 작업이 되기를 바란다.



이태원의 소설 '객사'의 시대적 배경인 일제강점기의 시대를 살았던 조선인들의 삶의 고통과 죽음을 기리는 작품이다. 소설의 제목과 같은 동음이의어인 '객사(客死)'와 같이 그 시대의 조선인들에게는 그들이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이 땅이, 하루 아침에 너무나도 낯선 어느 곳처럼 느껴졌을 지도 모른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하나의 소설을 넘어 한 시대를 되뇌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스테어스



<Die in a Strange Land> 작가 인터뷰

- 나동석 작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로 영상작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나동석이라고 합니다.

<Die in a Strange Land>은 어떤 작품 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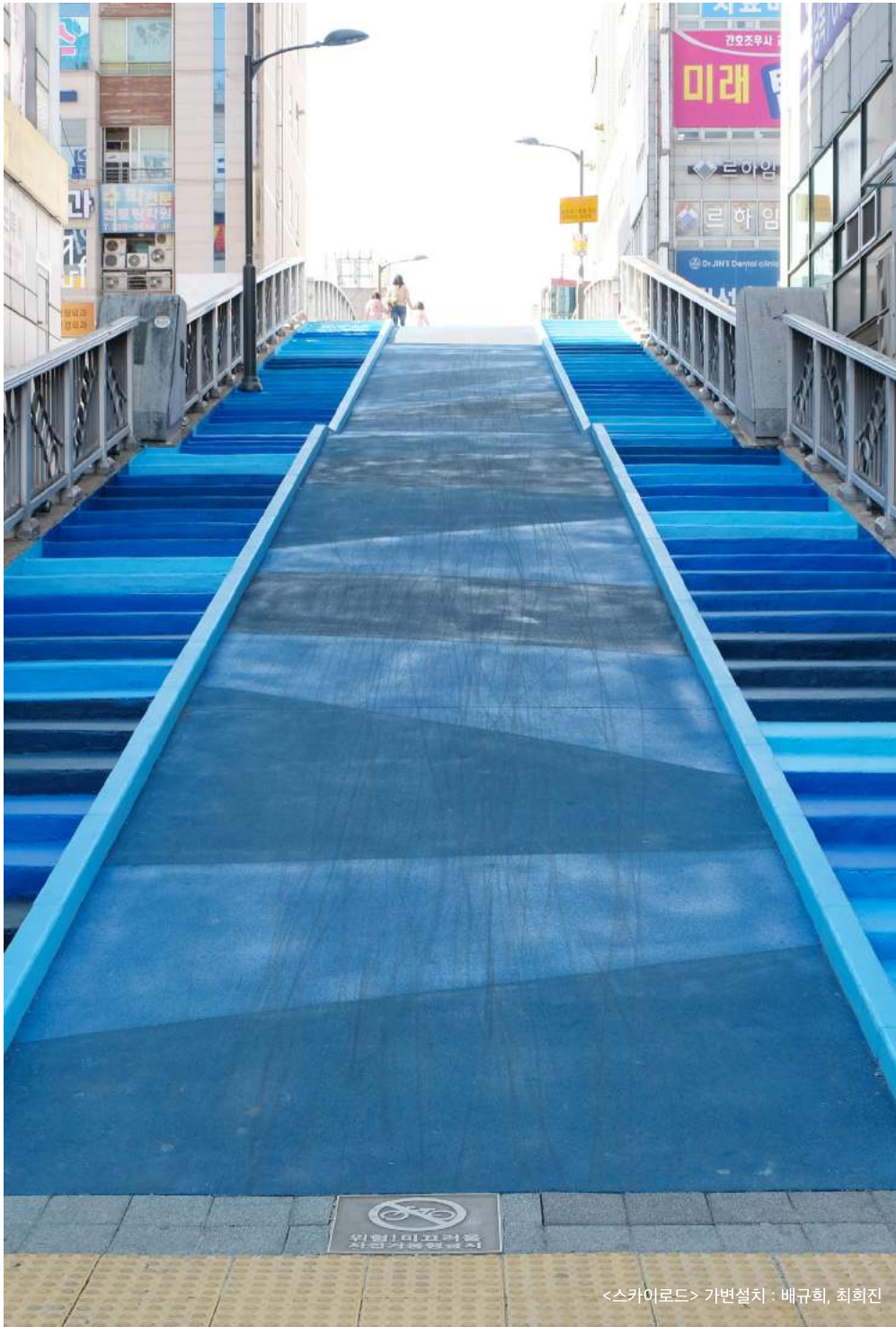
제 작품은 'Die in a Strange Land' 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태원 작가님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객사' 이니까 저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작품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구요. 그 당시 조선인들의 어떤 삶이나 이런 것들을 위로하는 의미의 작업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서, 현화를 하는 마음으로 꽃과 함께 라이트박스를 두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소감은?

많은 작가님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면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제 작품을 설치하게 된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 앞으로 이런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더 좋은 문화사업들이 진행되어서 대구의 이름이 크게 나는 좋은 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Die in a Strange Land>
인터뷰 영상 URL



<스카이로드> 가변설치 : 배규희, 최희진

스카이로드

배규희, 최희진



이태원길을 상징하는 블루 컬러와 육교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하늘로 향하는 모습의 스카이로드를 표현한 벽화 작품이다.

단순히 지나칠 수 있는 공간에 상승하는 듯한 이미지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희망찬 긍정적 에너지를 주며, 이태원길의 끝 혹은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육교로 올라가는 계단에 맑고 담담히 퍼지는 색깔을 더해 계단을 오르내리며 걷는 길에 서정적인 기운을 더했다. 제작에 참여한 작가가 소설을 읽으며 느끼고 이입했던 작품 속 인물들로부터 받은 영감을 담당한 색으로 단순화해 표현했다. 기능과 목적뿐인 오래된 육교 계단에 문학과 시각예술의 생명력을 더해져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스테어스



<스카이로드> 작가 인터뷰

- 배규희, 최희진 작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배규희 : 안녕하세요. 저는 배규희 작가입니다.

최희진 : 저는 보조 작가로 참여하게 된 최희진이라고 합니다.

<스카이로드>은 어떤 작품 인가요?

배규희 : 저희는 이태원길을 상징하는 블루컬러와 저희가 작업하게 된 공간인 육교를 활용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스카이로드'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소감은?

최희진 : 이번에 함께 콜라보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대구에 살면서 '작가 이태원'을 공부하고 그를 바탕으로 작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를 계기로 이태원길이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규희 :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 공간을 저희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이미지를 표현해서 만들어낸 긍정적인 에너지를 시민들께서 얻어 가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작가님들의 작품을 통해서 이 거리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스카이로드>
인터뷰 영상 URL



이응의 서가



소설가 이태원의 이름을 타이포그래피로 재해석하여 곳곳에 그의 생각, 글, 삶의 다양한 키워드와 이미지들을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표현했다.

이태원이라는 한 사람의 신념과 시대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에 스며들길 바란다.



이태원의 이름을 활용해 만든 아카이브형 조각 작품으로, 마치 그의 모든 작품 세계가 가지런히 정리된 하나의 책장이 연상된다. 이태원의 글과 생각, 그의 삶을 나타내는 다양한 키워드와 이미지들을 다양한 시각적 소재를 활용해 쌓아 올렸다. 지금 시대를 사는 예술가들에 의해 차곡차곡 쌓인 한 명의 예술가와 그의 삶은 시대를 넘어, 지역을 넘어 다양한 이들에게 작은 울림을 전해준다.

-스테어스



<이응의 서가> 작가 인터뷰

- 배은경, 변수영 작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배은경 : 저희들은 현재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는 배은경입니다.

변수영 : 저는 변수영입니다.

<이응의 서가>는 어떤 작품 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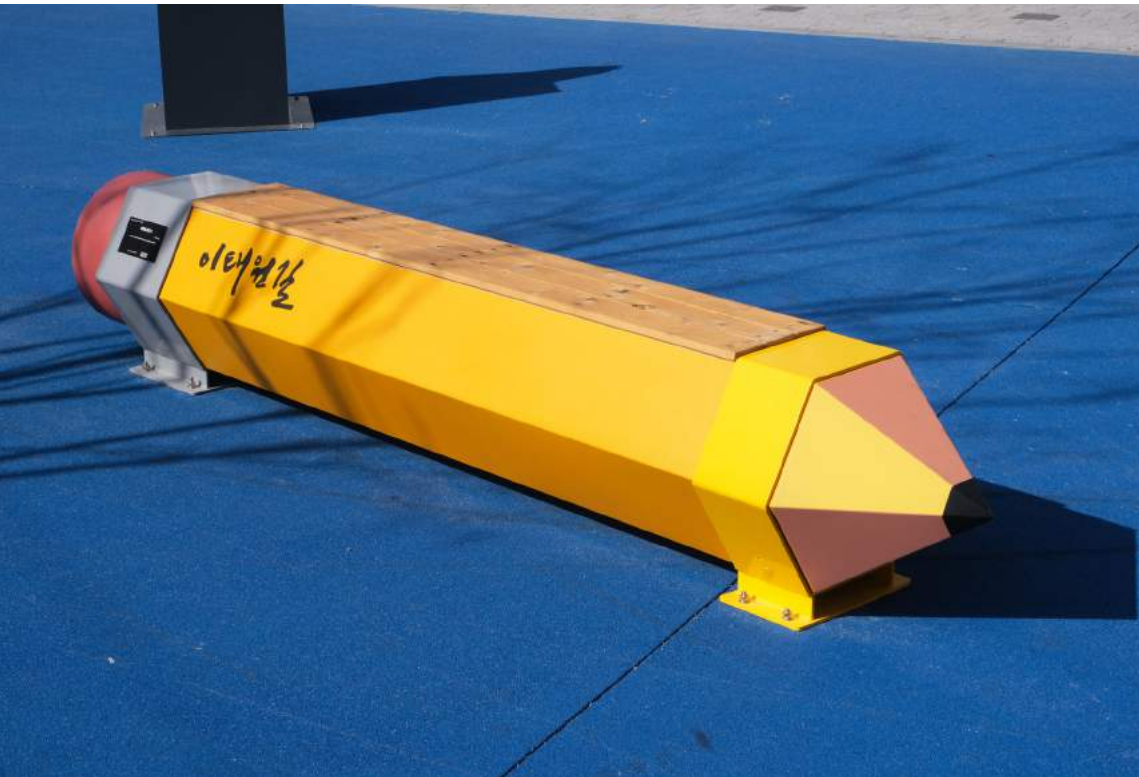
배은경 : 소설가 이태원님의 생각과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표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소감은?

변수영 : 공공미술이라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구요. 우리 지역에 이태원이라는 대단한 소설가가 있었다는 걸 알게된 것도 좋았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소설가의 작품을 저희는 디자이너인데, 디자이너인 저희가 다시 재해석 해낸다는 경험도 재미있었던 것 같구요. 여러모로 즐겁고 유익했습니다.



<이응의 서가>
인터뷰 영상 UR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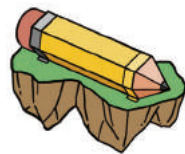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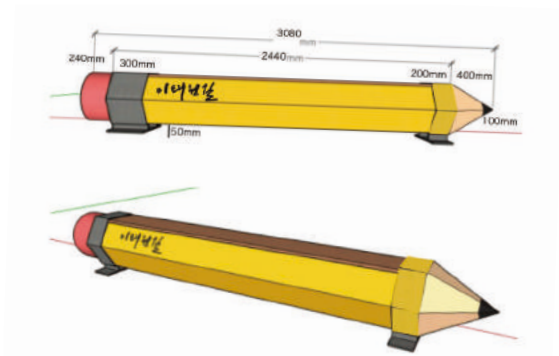
<문학에 쉬다2> 3500mmX450mmX400mm : 손영복, 유휘금

문학에 쉬다 2

손영복, 유휘금



이태원 작가가 작품을 구상할 때 사용되었을 도구를 연상하여 만든 아트벤치



'문학에 쉬다' 시리즈는 문학이라는 단어를 가장 직관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각 소재인 '책'과 '연필'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든 특별한 벤치를 선보인다.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장소를 염두해 이태원 거리를 방문한 그들이 가장 쉽고 재미있게, 또 몸을 기대앉아 이용하기도 하며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맞는 '문학'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스테어스



<문학에 쉬다 2> 작가 인터뷰

- 손영복 작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한 미술가 손영복이라고 합니다.

<문학에 쉬다2>는 어떤 작품 인가요?

문학에 쉬다 두번째 작품입니다. 연필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구요, 사람들이 지나다가 앉아서 쉴 수도 있습니다. 아트퍼니처 개념의 작품으로 문학을 상징하는 연필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실용성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거리를 걷다가 잠시 앉아서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여유있는 작품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학에 쉬다2>
인터뷰 영상 URL



<소풍> 좌대- 400×1000mm, 조형- 500×600mm : 신주현

소풍 신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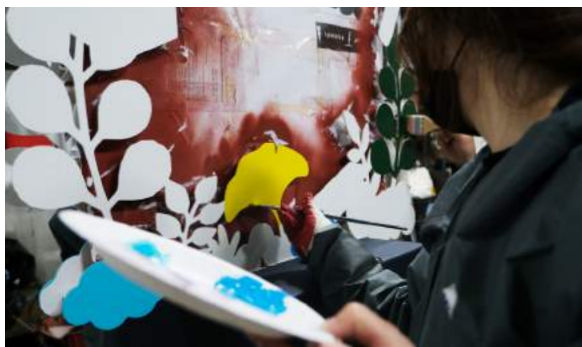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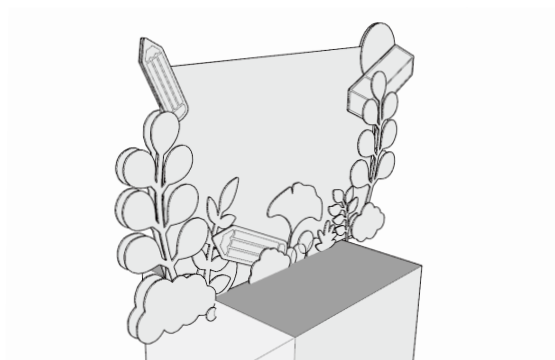
원고지판에 낙서가 하고 싶더라도 참아주세요.

이태원 작가를 위해 비워두었습니다.

필기도구와 은행잎은 이태원 작가를,

푸르른 풀과 시원한 구름은 이곳 칠곡을 재해석하여 표현했습니다.

소풍날처럼 즐겁게 많은 분들이 예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소설가 이태원을 위해 텅 빈 원고지를 만든 신주현의 조형물은 채워질 곳 가득한 그 여백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문학 작품을 접할 때의 설렘과 즐거움을 심어주는 듯 하다. 밝고 경쾌한 색감의 알록달록한 요소들은 이태원길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장소로 기억되길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가득 담겨있다.

-스테어스



<소풍> 작가 인터뷰

- 신주현 작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원길 프로젝트 참여하게 된 신주현 입니다.

<소풍>은 어떤 작품 인가요?

찰국 장소와 이태원 작가 소설에 등장하는 포인트들을 가져와서 모두 모아놓은 작업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소감은?

이태원 작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칠곡이라는, 저와는 조금 떨어진 공간도 새롭게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태원길에는 [이태원 문학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관과 함께 연극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극과 함께 미술이 더해진다면 사람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풍>
인터뷰 영상 UR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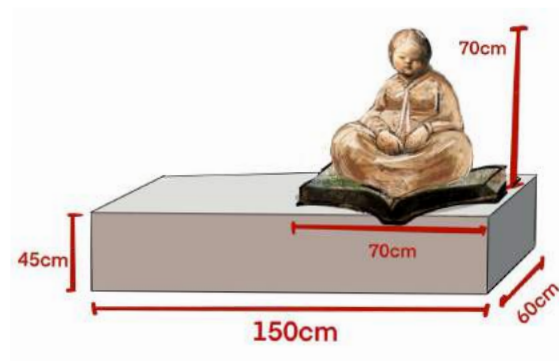


객사(客使): '나그네가 쉬어가는 집'

윤광웅



소설<객사>의 김벽순은 양반이라는 신분과 권위를 탈피하고 곤궁한 삶을 선택한 인물이다. 일제의 탄압과 온갖 풍파에도 살아남은 칠곡향교의 은행나무처럼 황무지를 일구는 어머니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했던 벽순의 소망은 고향을 등지고 구로공단 노동자로 살아가며 집필활동을 한 소설가 이태원의 치열한 삶과 맞닿아있다.



시간과 함께 발전해 화려하게 변모하고 있는 철곡을 담담하게 바라보는 객사의 주인공 '김벽순'의 모습을 조각했다. 높은 건물과 바쁘게 일상을 보내는 우리를 조용히 바라보는 벽순의 모습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지나치기 쉬운 이곳의 이야기와 이곳을 배경으로 한 문학에 대한 그리움을 조용히 불러 일으킨다.

-스테어스



<객사(客使): '나그네가 쉬어가는 집'> 작가 인터뷰

- 윤광웅 작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바트라는 이름으로 활동 하고 있는 윤광웅입니다.

<객사(客使): '나그네가 쉬어가는 집'>은 어떤 작품 인가요?

이태원 작가의 대표작인 [객사]에 나오는 주인공인 '김벽순' 을 형상화한 청동조각입니다. '객사'가 역사적으로는 사신이나 관리가 머물던 곳이지만, 나그네가 머무는 집'이라는 뜻에 주목한 것은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허무감과 외로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차별없는 세상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했던 소설 속 '김벽순'의 따뜻한 마음이 이 길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객사'가 되어주길 소망해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소감은?

여기가 도시의 오락거리와 유흥이 많이 모여있는 길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담고 있는 여러가지 문화를 담지 못하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곳을 배경으로 소설을 쓴 이태원 작가를 모티브로 해서 문화의 길을 시작하는 뜻깊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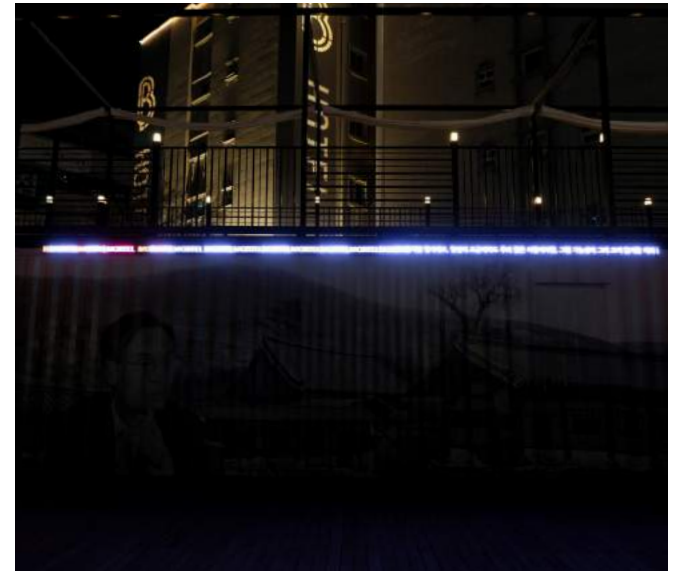
<객사(客使): '나그네가 쉬어가는 집'>
인터뷰 영상 UR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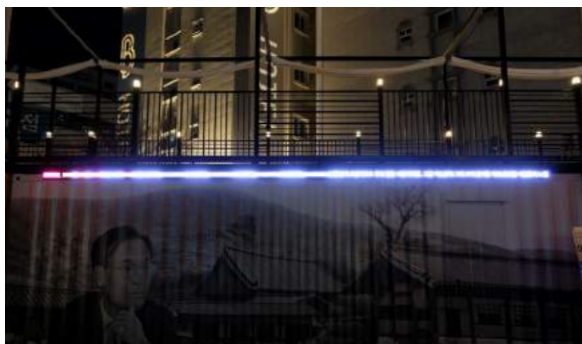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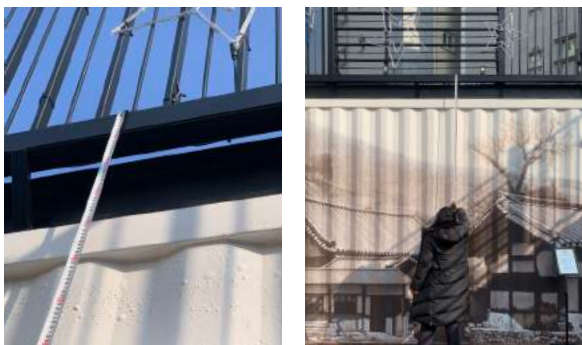
<밤에 내리는 글> 4500mm : 이경희

밤에 내리는 글

이경희



수많은 상가와 간판들 사이에서 빛나는 한 줄의 텍스트와 밤거리를 걷다가 잠시 멈추어 서서 그 글의 의미를 더듬는 행인을 상상하며 작업하였습니다. 작업 속 텍스트는 이태원 작가가 당대 현실을 가감 없이 반영하여 냉혹한 현실 속 인간 군상을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영감을 받아, 바로 지금 현대 사회를 떠도는 소외된 개인들의 모습을 작품 속에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도시의 밤을 밝히는 수많은 불 빛 사이로 이경희 작가가 남긴 한 줄기의 빛나는 글은 우리의 마음에 아련한 파장을 일으킨다. 그가 쓴 여러 편의 짧은 글은 소설가 이태원이 남긴 문학 속의 인물들처럼,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특히 현대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소외되어 떠도는 인간 개인들의 모습에 대한 짧은 단상을 보여주고 있다.

-스테어스



<밤에 내리는 글> 작가 인터뷰

- 이경희 작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예술 작가 이경희라고 합니다.

<밤에 내리는 글>은 어떤 작품 인가요?

주로 회화와 설치 작업을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텍스트 작업을 바탕으로 LED 패널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글들을 바탕으로 LED 패널에 자유롭게 띄우는 형식으로 제작을 하였는데요, 다양한 색깔이 LED 패널에서 나오고 재미있는 텍스트들을 읽는 재미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소감은?

공공미술로 제 작업이 실현되는게 처음이라서 처음에는 걱정이 많이 되고 긴장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설치를 하고 나니 너무 예쁘게 설치가 되어서 저도 기분이 좋고 보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기분 좋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학관이 위치한 이태원 광장이 상업지구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부분과 정신없다는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예술가들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모두가 원하는 이태원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밤에 내리는 글>
인터뷰 영상 UR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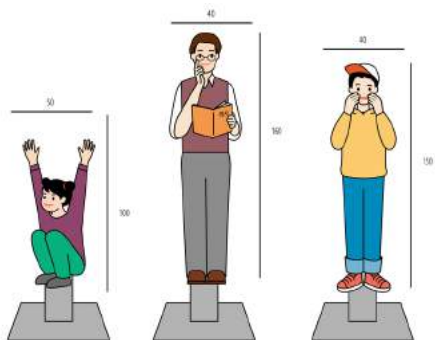
<우리들> 500×500×1600mm : 이민순

우리들

이민순



이태원 작가를 우리와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일러스트로 표현했다. 휴식공간, 만남의 공간에서 이태원 작가를 현재에도 앞으로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우리들의 유쾌한 모습을 담았다. 이 일러스트를 통해 작가를 더 친근하게 생각하길 수 있길 바란다.



공원을 찾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 등신대이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려진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고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마치 이태원 문화거리를 찾은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다. 제작된 인물의 앞, 뒷면의 이미지가 가지는 작은 다름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다.

-스테어스



<우리들> 작가 인터뷰

- 이민순 작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구에서 일러스트를 하고 있는 이민순 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작품 인가요?

조금 더 쉽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태원 작가와 광장에 놀러온 친구들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공미술이니까 마주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소감은?

처음에 작업할 때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는데 1차로 와서 봤을 때 어떻게 설치가 되고 어떻게 사람들이 뛰어 놀기 상상하면서 작업을 하고, 설치하고 나서 다른 분 작업들이랑 같이 보면서 공공미술에 대해서 실감하게 되었고 재미있게 작업했습니다.



<우리들>
인터뷰 영상 UR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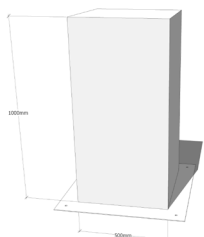


그리움

이상현



소설가 이태원과 그의 작품세계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작품에 담았다.



대리석을 이용해 투박한 질감으로 그리움을 새기는 이상현 작가의 조각 작품이다. 그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대상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우러난 애절한 감정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다. '칠곡'이라는 지역을 바라보는 소설가 이태원의 감정 또한 그러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함께 이어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스테어스



<그리움> 작가 인터뷰

- 이상현 작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움>은 어떤 작품 인가요?

대리석으로 제작한 그림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사실 얼굴 부분이 없어요. 일반인들이 혐오스러워 할 수 있지만 초현실주의적인 풍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얼굴) 부분에 구름의 형상을 색깔이 다른 대리석으로 두개의 덩어리를 엮었습니다. 가슴에는 소통을 의미하는 문과 계단이 표현 되었습니다. 이태원이라는 작가의 작품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대리석을 통해서 표현한 작품을 출품하였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소감은?

제가 중간 작가가 되다 보니까 미술 예술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정부 주도하에 있던 공공프로젝트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아쉬운 것은 실질적인 작가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작가들의 힘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정착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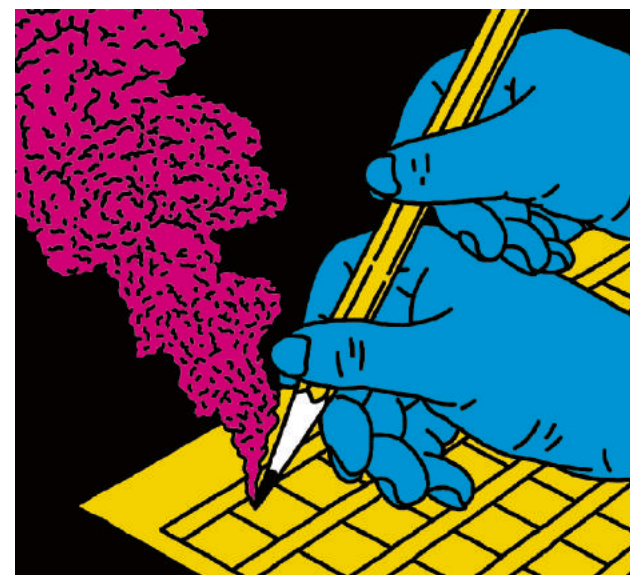
<그리움>
인터뷰 영상 URL



<글로 가는 길> 1050×30×1500mm : 이원오

글로 가는 길

이원오



작가가 글의 첫 문장을 쓸 때 열망과 긴장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피어오르고, 작품에 몰입해서 여러 가지 자아를 만들어내고 확장해간다. '객사'와 같이 동시대 배경이 아닌 작품을 집필할 때는 더욱더 그러했으리라 생각한다. 이것은 비단 문학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가들의 초상이다.



조심스레 첫 구절을 써 내려가는 문학가의 심정, 밑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심정, 첫 음을 연주하는 음악가의 심정 등 모든 예술가가 내딛을 첫걸음의 모습을 담은 예술가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며 누구나 겪는 설레기도, 두렵기도 한 '시작' 그 순간의 복잡한 감정을 한 장의 그림에 모두 담은 우리 삶에 대한 한 장의 초상이기도 하다.

-스테어스



<글로 가는 길> 작가 인터뷰

- 이원오 작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티사웍스'라는 그래픽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작가 이원오라고 합니다.

<글로 가는 길>은 어떤 작품 인가요?

제목이 '글로 가는 길'이라는 작품인데요, 여럿 작가분들도 공감 하시겠지만 작품을 처음에 대할 때 열망과 여러가지 감정들이 넘쳐 나잖아요. 작품을 하다보면 본인이 빠져들어 다른 사람이 되어서 본인이 아닌 본인이 집필하는 느낌이 들 수 있고, 그런 여러가지 느낌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소감은?

제가 공공미술은 처음 참여해보는데 니나노프로젝트에서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 해주셔서 가지고 사실 작품에 굉장히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 가는 길>
인터뷰 영상 UR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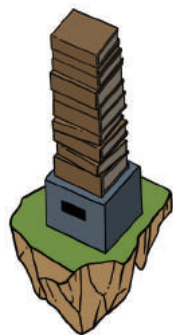
<이태원 기념비> 100×800×2000mm : 이은재

이태원 기념비

이은재



소설가 이태원을 추모하고 발자취를 기억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기념비 형식의 조형물이다. 이태원 작가의 저서들이 쌓여있는 조형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철판이 녹슬어가는 과정이 작품의 일부가 되어 주변 환경과 함께 시간이 누적될 수 있도록 작업하였다.



사람보다 더 오래 남는 예술'을 상징하듯 이태원 작가가 남긴 책을 쌓아 만든 의미 깊은 기념비다. 보통 한 인물의 기념비라 함은 그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한 소설가가 남긴 문학을 한데 보여주는 의미가 뜻 깊다. 철판으로 만들어진 이 조형물은 시간과 함께 자연스럽게 낡고 닳으며 오랫동안 기억될 이태원 작가와 그의 문학을 상징한다.

-스테어스



<이태원 기념비> 작가 인터뷰

- 이은재 작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회화와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이은재 작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원 기념비>는 어떤 작품 인가요?

이 작업은 작가의 방에 쌓여 있는 책모양을 모티브로 작업 했구요, 이태원 작가를 기념하는 기념비 형식으로 철판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면서 이태원길의 주변 환경들이 녹과 함께 누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조형물을 제작하였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소감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고장에 이렇게 훌륭한 작가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런 점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시간들과 현재의 시간을 함께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문화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기념비>
인터뷰 영상 UR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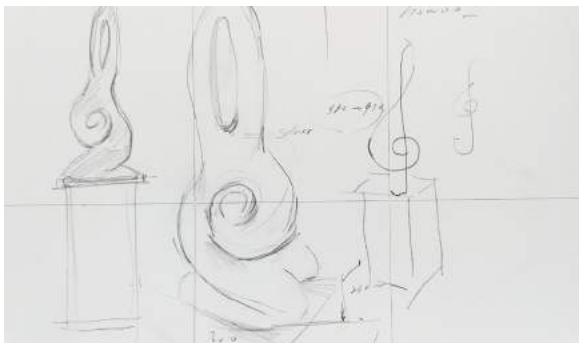
<운율안에 그대 기억> 400x400x1600mm : 이호우

운율안에 그대 기억

이호우



소설가 이태원 작가의 문학 안에서 느껴진 시대 아픔의 흐름을 한 여인이 느끼는 기억 속에 운율로 표현한 작품이다. 힘겨운 시대 지금의 현실도 모두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아름다운 추억을 잠시라도 떠올리며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소설을 이루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성처럼 음악, 그중 소나타라는 장르 또한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 코다의 순서로 구성된다. 작가는 문학과 음악이 가지는 기승전결의 구성적 공통점에서부터 영감받아 그것들이 함께 가지고 공유하는 운율과 흐름의 에너지를 알루미늄 주물이 부드럽게 흘러 쌓인듯한 모습을 통해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했다.

-스테어스



<운율안에 그대 기억> 작가 인터뷰

- 이호우 작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예작가 이호우 라고 합니다.

<운율안에 그대 기억>은 어떤 작품 인가요?

문학속에 흐르는 음률이라든지 음악에서 사용되는 높은음자리표와 여자 신체를 융합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소감은?

이태원 길을 여러 작품들, 작가님들과 협업 할 수 있는 작업 기회가 생겨서 저희에게 보람이 되고, 요즘 힘든 시기에 작가들의 작품들과 함께 이태원길이 조금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럼 바람이 있구요.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운율안에 그대 기억>
인터뷰 영상 UR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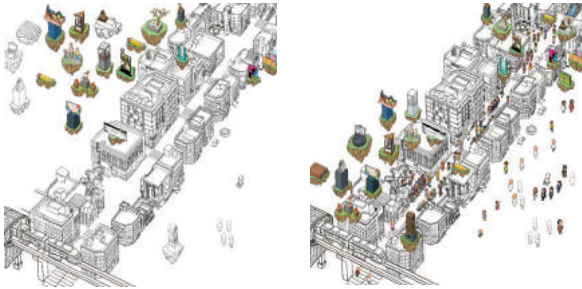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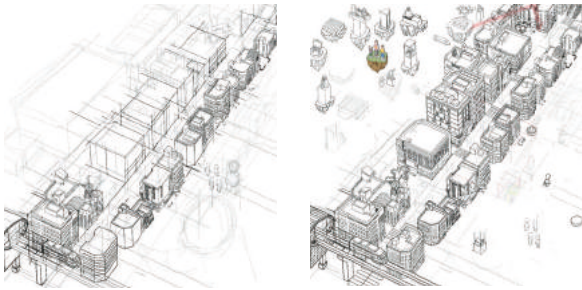
<이태원길 모험도> 2000x3000mm : 인충엄, 홍종기

이태원길 모험도

인충엄, 홍종기



동천육교에서부터 팔기역까지 이태원길에 있는 건물들과 사람들, 공공미술작품들을 보물지도의 컨셉으로 표현했다.



바로 지금, 2021년의 이태원 문학길 일대를 기록해 보여주는 인총엄 작가의 일러스트 지도이다. 거리 곳곳에 숨겨진 재미난 요소들을 찾아 그림 속에 숨겨놓은 작가만의 장난기 가득한 재치가 가득 녹아들어 있다. 한 예술가가 실제 거리를 거닐며 바라보고 기록한 그림 지도와 함께 골목 곳곳을 누비며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다.

-스테어스



<이태원길 모험도> 작가 인터뷰

- 홍종기 작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총엄 작가팀에 홍종기 작가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드로잉 작업을 하고 일러스트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길 모험도>은 어떤 작품 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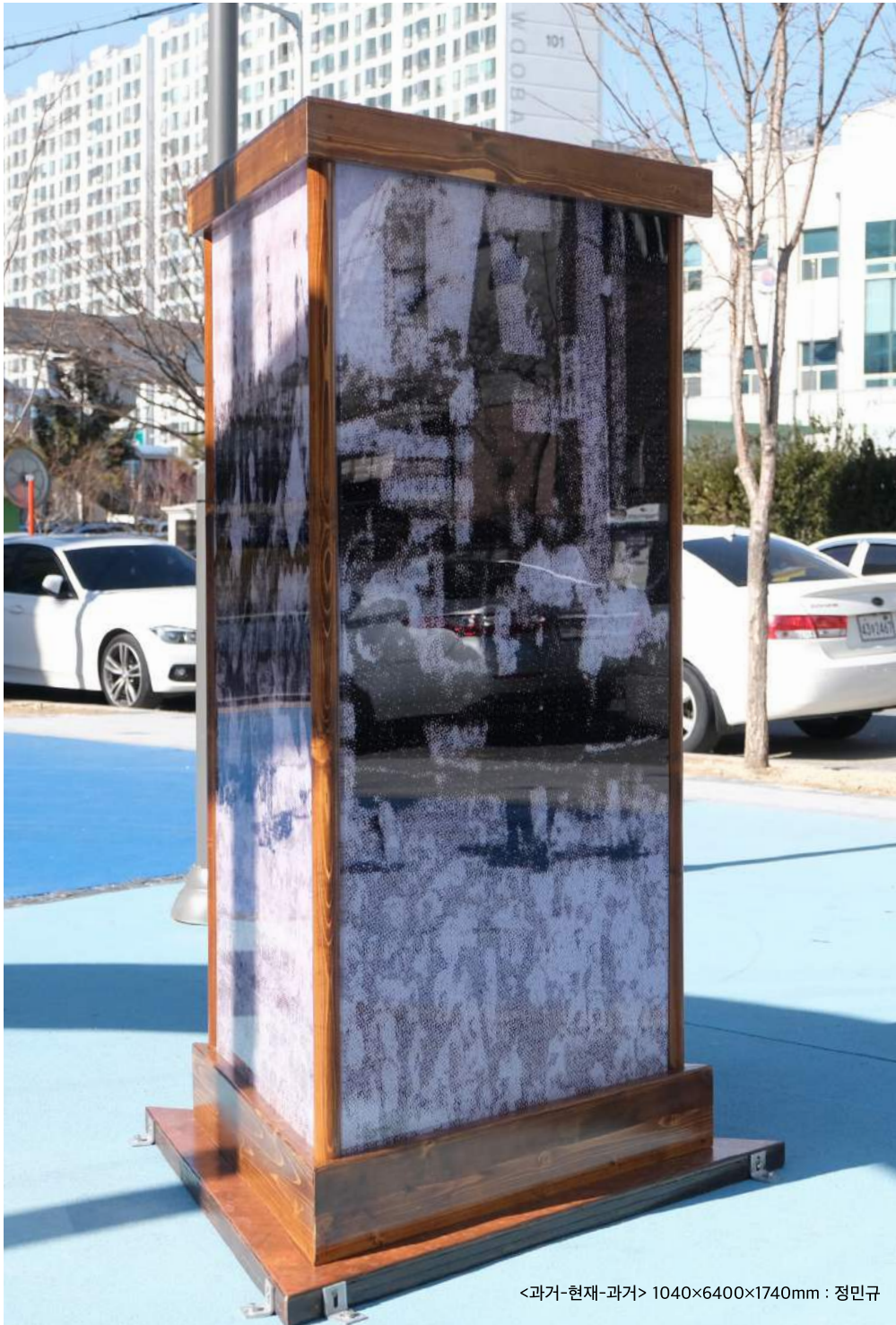
저는 이태원길 자체를 지도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보물지도를 컨셉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작품들을 찾아가는 그런 즐거움을 의도 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소감은?

다양한 작업물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제가 지도를 표현하면서 다른 작가님들의 작품을 간접적으로 그려 보니까 즐거웠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원길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작품들로 인해서 문화의 관련된 길로 보이게 되니까 차츰차츰 완성되리라 믿습니다.



<이태원길 모험도>
인터뷰 영상 URL



<과거-현재-과거> 1040×6400×1740mm : 정민규

과거-현재-과거

정민규



이 작품은 이태원 작가의 작품 '객사'의 시대적 배경인 근대 대구의 사진 사료를 조사, 수집한 후 당대에 촬영되어 기록된 인물들을 재촬영하여 제작한 것으로 과거의 사진 사료 속 인물들을 그의 소설에 등장했는지 모르는 인물로 상상하며 작업을 진행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 시간 속의 사람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가 되어감과 동시에 더 먼 과거를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기에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작품이 미래에도 이 공간을 거니는 시민들에게 이태원 길과 이태원 작가를 기리고 추억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소설 '객사'의 시대적 배경인 근대 대구의 인물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실제 사진 자료를 기반으로 그 시절에 살았을 법한, 소설에 등장했을 지도 모르는 정민규 작가만의 상상 속의 인물을 만들었다. 작품 속의 인물, 그 위로 비치는 나의 모습이 한데 얹혀 서로 바라보는 오묘한 시선 그 위로 흐르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의미를 다시금 곱씹어 볼 수 있다.

-스테어스



<과거-현재-과거> 작가 인터뷰

- 정민규 작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진과 설치 위주로 작업하고 있는 정민규라고 합니다.

<과거-현재-과거>는 어떤 작품 인가요?

이태원 작가의 '객사'라는 작품 속 시대적 배경인 1920년대 근대 인물들을 다시 수집을 하고 재촬영을 해서 그 시대적 배경에 존재해서 기록되었던 사진들을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소감은?

공공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갈래에 맞춰서 작업화 하는것들이 재미가 있었습니다.



<과거-현재-과거>
인터뷰 영상 UR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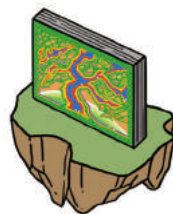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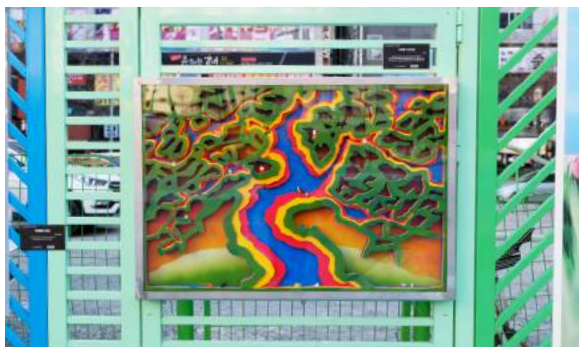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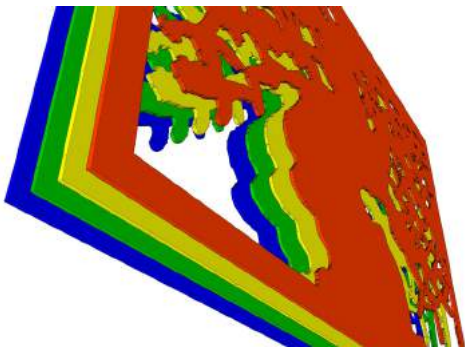
<도남동 느티나무> 1160x760x96mm : 최수환

도남동 느티나무

최수환



300년 넘게 마을을 지켜온 도남동 수호신인 할매느티나무를 형상화하여 캔버스 회화로 작업된 원화를 투각으로 변형한 입체회화이다. 마을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나무의 숲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미니어처를 넣어 두었다.



300여 년 동안 한자리에 오롯이 서서 도남동을 지켜온 '할매느티나무'를 최수환 작가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표현했다. 가을 빛에 물든 따스한 색감의 원작 회화 작품을 토대로, 한국의 '단청'에서 영감을 받은 듯 한 네 가지 색상의 투각 변형한 입체 회화 작품을 제작했다. 항상 주민들과 함께 오랜 세월의 풍파를 함께 맞고 이겨내며 다양한 이야기와 추억이 쌓인 마을의 수호신을 선명하고 생동감 넘치게 표현했다.

-스테어스



<도남동 느티나무> 작가 인터뷰

- 최수환 작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성에서 살고 있고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그림 그리는 최수환이라고 합니다.

<도남동 느티나무>은 어떤 작품 인가요?

제 작품은 원래 원작이 칠곡 도남동 올라가는 길에 있는 300년 정도 된 느티나무를 그린 작품이 원작이구요. 그 평면 작업물을 입체적으로 다시 제작을 한 작품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소감은?

칠곡은 제가 한 15년 정도 살았던 지역이거든요. 제가 살던 지역에 새롭게 만들어진 거리에 제 작품을 설치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공공미술 이라는게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참여를 했습니다.



<도남동 느티나무>
인터뷰 영상 URL



<사랑하는 너와 함께> 2000×2000mm내외 (가변) : 최영지

사랑하는 너와 함께

최영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날의 기억을 담은 그림과 글귀를 통해 소중한 사람을 떠올려보게 하는 작품이다. '보이지 않는 가치', 그중에서도 '사랑'이라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중심으로 세대를 통합하는 예술과 문학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란다.



사랑하는 너와 함께'라는 제목에서 엿볼 수 있듯 사랑이 가득한 작품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의 흐름 속에서도 항상 마주할 수 있는 따뜻한 햇살처럼, 내 곁의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함께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일상에서의 작고 사소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포착한 최영지 작가만의 시선을 통해 작품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도 온기가 스며든다.

-스테어스



<사랑하는 너와 함께> 작가 인터뷰

- 최영지 작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지라는 작가구요. sns에서 '영지의 그림일기'라는 작품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너와 함께>는 어떤 작품 인가요?

(이태원이라는 주제로) 조금 더 사람들이 다가가기 쉽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 위주로 뽑아 봤어요. 역사, 문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렵게 접근 할 수 있는데 그림과 글을 같이 배치함으로써 좀 더 다가가기 쉽고 감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작품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소감은?

뜻깊은 작업에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구요. 다양한 작가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처음 야외 작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전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구요, 역사와 현대를 아우르는 작품들이 많이 비치 되어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너와 함께>
인터뷰 영상 UR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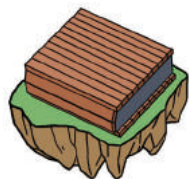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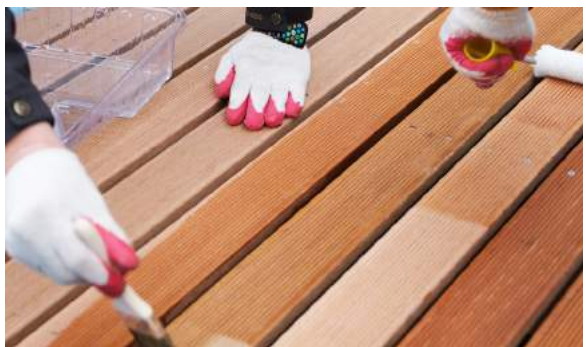
<문학에 쉬다 3> 1800X1200X450mm : 최현석

문학에 쉬다 3

최현석



문학을 구상할 때 사용되는 사물, 도구의 형태에서 모티브를 얻어 대중에게 익숙한 소재인 [책] 형태를 단순화하여 디자인한 [스트리트 퍼니처]이다. 소설가 이태원과 이태원길을 직관적으로 표현하였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대중성과 실용성을 염두에 두어 디자인하였다. 시민들이 '문학에 쉬다 3'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며 삶에서 '문학'이란 장르와 친근하게 어우러졌으면 한다.



문학에 쉬다' 시리즈는 문학이라는 단어를 가장 직관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각 소재인 '책'과 '연필'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든 특별한 벤치를 선보인다.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장소를 염두해 이태원 거리를 방문한 그들이 가장 쉽고 재미있게, 또 몸을 기대앉아 이용하기도 하며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맞는 '문학'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스테어스



<문학에 쉬다 3> 작가 인터뷰

- 최현석 작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북성로에서 브랜딩, 디자인을 하고 있는 최현석입니다.

<문학에 쉬다3>은 어떤 작품 인가요?

대중적으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책 형태의 스트리트퍼니처를 생각해 책 형태의 야외형 벤치를 디자인하여 설치 하였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소감은?

칠곡 뿐만이 아니라 대구 지역에 있어서도 뜻 깊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가 평소에 만들고 싶었던 스트리트퍼니처를 새롭게 디자인 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중들과 잘 어울러지는 그런 예술작품, 공공미술로서 대중성을 가지고 실제 사용 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제품 디자인을 하였고요.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들이 점차 쌓여서 칠곡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태원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학에 쉬다 3>
인터뷰 영상 URL



<안녕 난 이태원의 요정> 600x600x1500mm : 한수민

안녕 난 이태원의 요정

한수민



소설가 이태원 작가의 작품 '객사'를 읽고 있는 요정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어린 시절, 모두의 친구였던 요정은 눈에 크게 띄지는 않지만 우리 삶의 곳곳에 숨어서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 모두 요정과 함께 이태원 작가를 기억하며 잠깐의 휴식을 즐기기를 바란다.



소설 '객사'를 읽고 있는 개구진 모습의 요정을 묘사한 작품이다. 제작에 참여한 한수민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요정 또한 이태원의 소설에서 눈과 손을 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게 만드는 작품이다. 이태원 문학 거리에 내려앉은 귀여운 요정이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작은 미소와 행복을 전해준다.

-스테어스



<안녕 난 이태원의 요정> 작가 인터뷰

- 한수민 작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예술을 하는 한수민 이라고 합니다.

<안녕 난 이태원의 요정>은 어떤 작품 인가요?

제 작품 이름은 '안녕 난 이태원의 요정' 입니다. 제 작품에 주로 등장하는 상상속의 요정이 이태원 작가의 '객사'를 읽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여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소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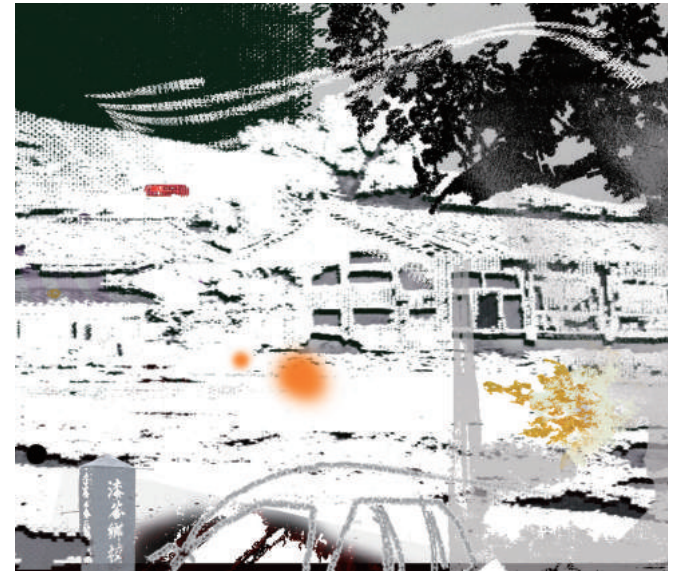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작가님들과 같이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만의 이태원을 해석한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칠곡에 있는 이태원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태원이라는 작가가 쓴 다양한 책들을 처음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구요, 이런 이태원길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태원 작가의 작품들을 다양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난 이태원의 요정>
인터뷰 영상 URL

우리는 무엇을

한승재, 김도경



이태원 소설 '객사'로 확인하는 칠곡의 과거 모습들과 현재의 모습, 그리고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요소들을 수집해 한 화면에 배치하며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새로운 칠곡의 모습을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우리가 지나치는 공간들에 대한 과거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무엇을> 3000x1100x150mm : 한승재, 김도경



문학 작품 속에 인용되고 묘사된 칠곡의 과거 모습과 참여 작가가 직접 포착한 칠곡의 현재 모습을 시각적으로 한데 재구성한 디지털 회화 작품이다. 장소를 이루는 자연적, 역사적, 지역적 요소들을 조사, 수집해 한 화면에 함께 배치하며 다양한 갈래로 해석 가능한 새로운 모습의 칠곡을 보여준다. 지나온 과거를 현재에서 다시 상상하는 독특한 접근 방법이 재미있는 작품이다.

-스테어스



<우리는 무엇을> 작가 인터뷰

- 김도경 작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승재 작가 보조작가로 참여하게 된 작가 김도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은 어떤 작품 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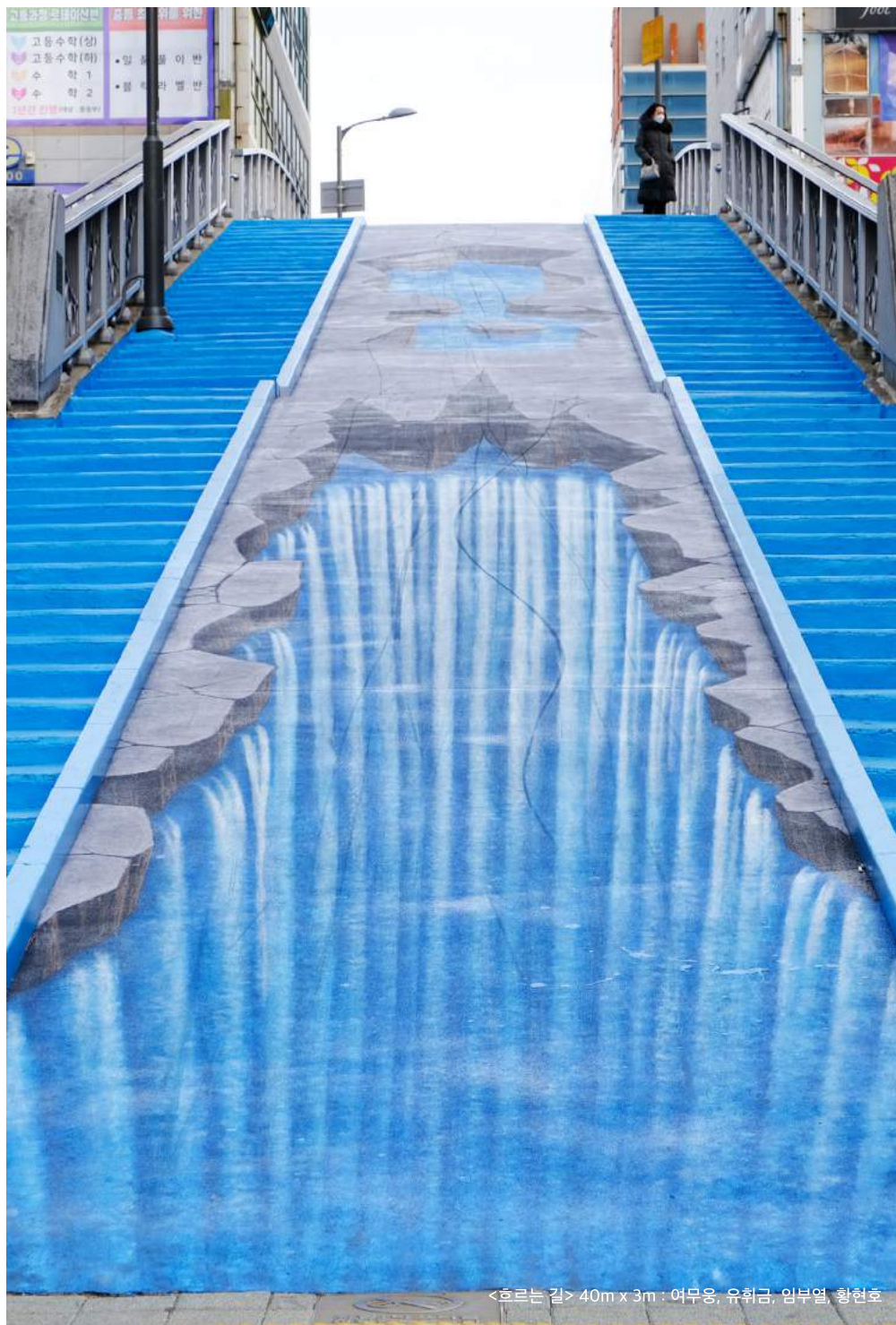
저는 주로 회화 작업을 기반으로 디지털 작업을 함께 진행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소설가 이태원 선생님의 작품 [객사]를 참고 하여서 작품 [객사]속에 있는 내용들과 그리고 중요한 텍스트들, 그리고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뽑아서 이미지를 재구성하고 배치하여서 작품을 제작 하였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소감은?

소설과 그리고 이태원길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새로운 부분들과 역사적인 의미들을 알게 된 뜻깊은 이벤트였구요.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소설가(이태원) 그리고 이 길에 대해서 칠곡에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인터뷰 영상 URL



<흐르는 길> 40m x 3m : 여무웅, 유휘금, 임부열, 황현호

흐르는 길 - 육교트릭아트

여무웅, 유휘금, 임부열, 황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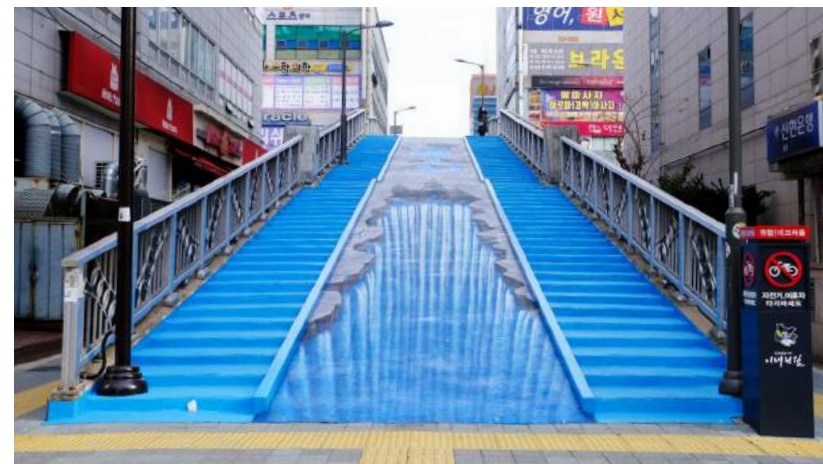


이 길이 머물러있지 않기를, 흐르는 물처럼 언제나 새로운 생명이 순환되길 바라
며, 시민들이 이 길을 걸을때 조금이라도 즐거움이 스며들길 바라며...



오래된 육교에 작가들의 재미난 상상력을 담아 새로운 문화의 흐름을 나타내는 길을 만들었다. 시원스레 내리 뻗는 푸른 물줄기와 작품을 바라보며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 그 생생함이 달라, 바쁘게 일상을 오가는 우리들에게 잠시 멈추어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을 전해준다.

-스테어스



<흐르는 길> 작가 인터뷰

- 유휘금 작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유휘금입니다. 저는 작업을 하면서 공공미술을 이십여 년간 해온 공공미술 작가이기도 합니다.

<흐르는 길>은 어떤 작품 인가요?

네 바닥화 <흐르는 길>은 이 길에 놓여질 여타 공공미술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흐르고 있는'의 움직이는 의미를 담아 '흐르는 길'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육교의 높은 곳에서 물이 흐르는 듯한 착시효과와 형식으로 그린 것도 그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디 그런 의미가 이 곳을 지나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작가는 그림감상을 또 나아가 이 공간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소감은?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 <칠곡 이태원 길, 객사의 길을 그리다>를 통해 이 공간에 새로운 흔적을 남기게 되어 무척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그간의 작업과 달리 소설가 이태원을 주제로 하여 이 길에 새로운 의미의 작품을 남기게 되어 참으로 뜻 깊은 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작가들과 공동으로 작업하게 된 것도 하나의 좋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소설 객사 드로잉 프로젝트

가능성의 발견

《객사 드로잉 프로젝트》는 이태원의 소설 <객사(客舍)>를 시각예술 작품으로 재해석하며, 문학과 시각예술이라는 두 가지 장르를 교차시켜 동시에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공공미술이라는 특성은 관람객이 직접 미술관에 찾아가야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던 전시 형태와 달리 우리의 일상에 예술이 스며들도록 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자신의 일상 안에서 이태원이 <객사(客舍)>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자신의 고향인 칠곡을 향한 수호 의지와 역사가 지켜낸 이 땅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소설은 ‘객사’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일제의 만행과 그로부터 자신들의 마을을 지키려는 이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한 줄의 줄거리만 보아서는 흔한 영웅 신화와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위대한 영웅 이야기가 아니다. 책의 제목이자 주인공인 송판돌의 가족이 지내는 객사는 본래 ‘나그네가 묵게 하는 집’이라는 의미로,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일제강점기 당시 칠곡을 지키려는 인물들이 양반이 아닌 자신의 땅조차 가지기 힘들었던 천민이었다는 점과 연결된다.

“눈 앞으로 팔거들의 아늑한 들녘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중략) 그런 팔거들인데도 객사의 그들에게 발을 딛고 설 땅 한 뼘이 없었다”(하 256p)

소설 객사에서 묘사되는 부분을 보자. 나그네에겐 이 땅이 잠시 머물다 갈 장소일 뿐인데 그곳을 치열하게 지켜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나그네로 빚대어지는 가진 것 없는 이들만이 자신이 나고 자란 땅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넘어지고, 좌절한다. 마을의 중심가에서 객사까지 쫓겨난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끝까지 그곳을 지키려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어느새 수많은 이야기를 거쳐 결말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새롭게 탄생하는 땅’을 위한 이들의 이야기는 책장을 덮고 난 뒤에도 이어진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25명의 작가들은 위와 같은 소설의 주요 사건 및 장면이 묘사된 페이지를 도화지 삼아 저마다 자유로운 해석과 감상을 토대로 각자의 개성이 담긴 드로잉 작품을 제작했다. 즉, 관람객들은 소설 구성 3대 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객사(客舍)> 이야기 속 주요 장면과 인물들의 성격, 가치관이 드러나는 대사 또는 묘사 등의 이야기를 시각예술 작품으로 다시금 감상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문학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시각예술 작품은 큐레이터에 의해 다시 문자화되어 책, 드로잉과 나란히 놓이며 감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이처럼 경계를 넘어 각 장르의 특성이 교차할 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너지가 발생한다. 기존에 이태원 길에서 진행한 <객사> 연극과 더불어 무용, 국악 등 다채롭게 진행되는 행사는 한 예술가의 문학과 그의 삶뿐만 아니라 쉽게 지나쳤던 일상 속 장소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했다. 책장을 덮었다고 해서 이야기의 끝이 아닌 것처럼, 작품을 감상하고 난 뒤에는 다른 장르가 가진 새로운 시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 역시 해석의 또다른 갈래로써, 지금까지는 단일 장르로만 이야기가 재구성 되어 왔다면 이제는 다양한 예술 장르의 융복합을 통해 ‘이태원 길’만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

북구공공미술프로젝트 참여작가(비평) 강아림, 김박보나



곽라는 작가 (상-163)

판들은 양반의 신분을 저버리고 천민의 아낙으로 살아가길 받아들이던 벽순이 다시 양반의 신분을 되찾고, 딸 인달 역시 학업을 이어나가길 바란다. 곽라는 작가는 하늘에 떠 있는 여인이 이러한 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장면으로 그려냈다. 그러나 돌아 앉은 벽순의 뒷모습은 이와 대조되게 어딘가 처량하고 단호하다.



김건예 작가 (하-213)

김건예 작가는 영달이 신사 대들보에 목을 단 모습을 가감없이 그려냈다. 자주색은 신사라는 장소를 강조하고 있으며, 생기 없는 회색으로 그려진 영달은 이와 대조된다. 드로잉에 가려지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중 '날조된 얘기로 밝혀졌다.'는 영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음과 연결된다.



구주림 작가 (상-147)

오랜 시간 신병을 앓았으나 양반의 신분에 의해 무당이 되는 것을 저지당했던 신씨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더 이상 병을 회복할 수 없음을 인지한 신씨가 마지막 무당춤을 추어 한을 풀고자 하는 장면이다. 구주림 작가가 그린 곳을 하는 신씨의 모습은 그녀가 받아온 억압과 그로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모습이며,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김명환 작가 (하-26)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본의 편에 선 홍서방의 최후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인과응보로 초죽음이 된 홍서방을 순달이 구해 둘은 연고 없는 지역으로 떠나게 된다. 김명환 작가는 금이 간 듯한 조각들 안에 다양한 기호를 넣어 두 사람이 '짜임새가 흔들려 황폐한 골짜기'로 변한 조피굴에 도착할 것을 예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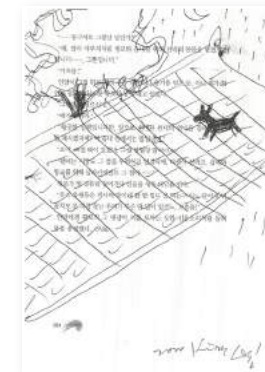
김병호 작가 (하-317)

술한 고문에 의해 시력과 청력을 잃은 벽순이 초죽음이 되어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 마을 의원의 집으로 옮겨와 치료를 받고 기력을 회복하여 인달과 마주하는 장면이다. 김병호 작가는 똑바로 뜬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이미지를 통해,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 벽순의 의지를 보인다.



김수미 작가 (상-355)

자신의 신분에 의해 본래 양반의 신분인 인달이 배움을 멈추어야 하는 것을 안타까워 한 판들은 '그대로 두고 지낸다는 게 죄스러워 견디기 어려웠던 탓에 결국 죽음을 택한다. 김수미 작가의 드로잉은 사람 얼굴 형상과도 닮아있는데, 이는 죽음에 대한 어두운 이미지를 더욱 강렬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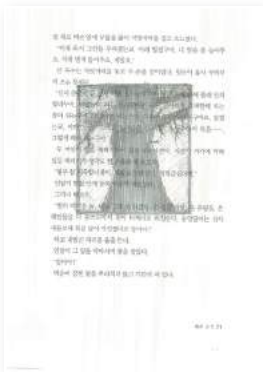
김병호 작가 (하-364)

신사가 허물어지고 난 이후 인달은 황보용, 태석과 함께 보통학교 설립을 위해 힘을 쓰기로 한다. 김병호 작가가 그린 이미지에는 잘 가꿔진 길 위에 강아지로 보이는 형상 하나만이 존재하는데, 여러 사건사고 이후 평화로워진 마을의 분위기를 반영하며 앞으로의 철곡 역시 이와 같이리라 희망이 보인다.



김재는 작가 (상-232)

판들과 벽순네 가족이 향교에서 객사로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는 장면이다. 김재는 작가는 목탄과 콘테를 사용하여 소설에서 묘사되는 객사의 어둡고 흐린 이미지를 강조한다. 작은 빛 하나 없는 풍경은 앞으로 판들의 가족이 객사에서 지내는 것 역시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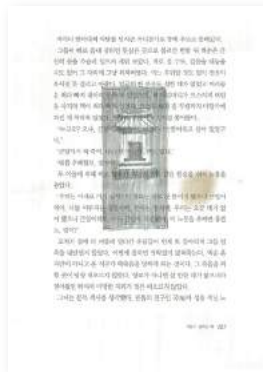
나동석 작가 (하-71)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매국을 서슴치 않았던 안목수에 의해 마을사람들에게 고된 시달림을 당해야했던 영달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신사에 목을 매고 희생하였다. 그러나 안목수는 이를 날조하기로 하며, 나동석 작가는 이를 강조하듯 아무것도 매달리지 않은 소나무를 그렸다.



박상훈 (상-85)

판돌네 일가족이 명륜당 뜰에 앉아 달구경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들은 가난하지만 삶을 쉽게 포기 하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박상훈 작가는 그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단순히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닌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자 하는 것으로, 밤하늘에 뜬 달과 별을 통해 판돌네 가족의 강인함을 보인다.



나동석 작가 (상-227)

판돌네가 유림들에게 쫓겨 고지기네에서 객사로 거처를 옮기며 판돌이 관리하던 향교와 물리적 거리가 생기게 되는 장면이다. 나동석 작가는 쓸쓸히 남은 향교의 입구를 그리고 주변부를 어렵게 채웠다. 이를 통해 관리인을 잃은 향교의 운명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배규희(최희진) (하-181)

향교의 정기를 중요시하면서 이렇다 할 행동을 취하지 않은 양반들을 인달에서 시선에서 비판적으로 서술된 장면이다. 배규희, 최희진 작가는 텍스트 위에 사각형을 그려넣어 특정 내용을 감추거나 강조한다. 신사 준공이 결정되던 당시에 만세운동을 벌여 반발을 서슴치 않았던 인물들은 양반이 아닌 천민 신분의 마을 사람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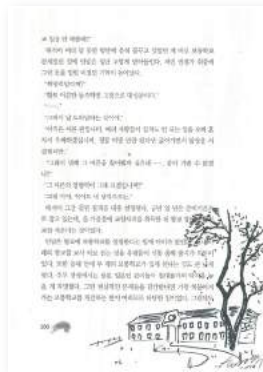
손영복 작가 (하-256)

손영복 작가는 소설에 묘사된 팔거들 들녘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렸다. 하지만 이후 이야기는 팔거들이 객사에서 살고 있는 이들의 땅이 아님을 강조하는데, 이와 대조되는 들녘의 모습은 마냥 평안해 보이는 팔거들에 몰아닥칠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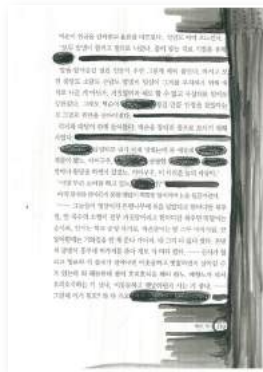
신주현 작가 (하-292)

판돌의 죽음 이후 계속해서 희생되는 벽순네의 비극적인 삶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신주현 작가는 대부분의 내용을 삭제하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세상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무탈하기를' 등 특정 단어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비극적인 삶에 대한 연민을 드러낸다.



손영복 작가 (하-280)

인달은 마을 내의 지성인을 육성하여 나라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꾸어보고자 마음을 품고 있었으나 자신의 신분에 의해 그 뜻을 저버려야 했다. 손영복 작가는 페이지 구석에 학교를 그려넣음으로써 인달의 뜻이 황보옹의 귀향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내비치기 시작함을 보인다.



신주현 작가 (하-319)

술한 고문으로 인해 청력과 시력을 잃은 벽순이 자신이 감옥에서 지켜낸 신념과 현재의 상황을 한탄하는 장면이다. 신주현 작가는 '어미', '내새끼' 등 가족 사이의 호칭을 의도적으로 지워 벽순네 가족이 분산된 상황을 표현하였다.



유혜균 작가 (하-244)

황보용 지식인으로서 마을의 문제에 앞장설 생각이 없음을 확인한 인달이 아궁이에 편지를 불 태우는 장면이다. 유혜균 작가는 타들어가는 인 달의 편지, 그리고 마음을 그을린 페이지로 표현 하였다.



윤광웅 작가 (상-165)

양반의 신분을 저버린 벽순이 지닌 곧고 강한 신 념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윤광웅 작가는 그런 벽 순을 이미지화하고 그녀의 신념이 강조되어 나 타내는 대사를 함께 구성하여 인물이 지닌 의로 운 모습을 극대화하였다.



이원오 작가 (상-43)

'보리쌀 한 톨'도 잡지 않는 판돌, 벽순일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다. 이원오 작가가 그린 나뭇가지 같은 앙상한 팔과 힘없이 축 늘어진듯한 세 개의 손은 페이지에 등장하는 벽순, 인달, 대달을 암시한다.



이은재 작가 (하-205)

안목수가 영달의 죽음의 실정을 밝히고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벽순을 만나러 온 장면이 다. 이은재 작가는 안목수가 마신 찬물 한 바가 지, 향교의 은행나무를 의미하는 나이트 등 의 요 소들을 배치하여 스산한 기운이 흐르는 해당 장 면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이경희 작가 (상-14)

마을의 최고 어른인 황보가 향교 고지기인 판돌 과 향교를 둘러보는 장면이다. 이경희 작가는 소 설에서 묘사된 향교의 모습을 이미지화 시키고 이를 바라보는 익명의 누군가를 배치시켰다. 이 인물은 황보, 또는 판돌, 혹은 이 소설의 독자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헌 작가 (하-197)

신사 준공의 앞장서 마을의 악역을 도맡은 안목 수가 영달의 죽음 이후 개과천선하는 장면이다. 이상헌 작가는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나 그 것이 모든 것을 잃은 후인 안목수의 한탄스러운 상황을 쓸쓸하게 술을 들이키는 뒷모습으로 표 현하였다.



이호우 작가 (상-57)

인달이 다니고 있는 보통학교 내부에 대한 묘사 이다. 이 보통학교는 객사 내에서 신사를 설립 하는 사건과 연관이 있는 곳으로, 내용 전개에서 빠지지 않은 장소이다. 이호우 작가는 소설 속에 묘사된 보통학교를 모노톤으로 표현함으로써 암 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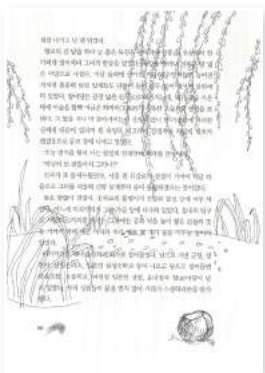
이충엄(홍종기) 작가 (상-16)

황보와 유림들이 안위를 끊임없이 살필 만큼 마 을의 정기를 담당하는 곳이었던 천만대와 옥여 봉이 묘사되는 장면이다. 소설이 전개되며 이곳 에는 신사가 준공되는데, 이충엄(홍종기) 작가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드로잉 함으로써 마을을 지켜내고자 한 사람들의 뜻을 표현하였다.



정민규 작가 (상-36)

양반의 신분을 저버린 벽순과 그런 벽순을 지키기 위해 부부 행세를 해야 했던 판돌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부분이다. 정민규 작가는 장면 속 자신의 눈길을 사로잡은 문장들을 부각시켜 소설 객사 속의 상황에서 작가 개인의 상황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다시금 관람자가 사고할 수 있는 장면을 제작하였다.



한수민 작가 (상-56)

인달의 시각으로 주변 풍경을 묘사하는 장으로, 소설 속에서 묘사되는 칠곡의 풍경을 상상해볼 수 있는 장면이다. 한수민 작가는 인달의 눈으로 바라본 풍경을 다시금 자신의 시각으로 이미지화하여 소설 공간의 재창조를 시도하였다.



최현석 작가 (하-147)

소설에서 묘사되는 '대구 쪽 모래 갯벌'이나 '금호강을 가로지르는 좁고 긴 목교'는 현재 볼 수 없는 풍경이다. 최현석 작가는 당시 상황을 드로잉을 통해 보여주는데,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이 넓게 퍼지며 페이지의 가장자리 부분과 이어지는 풍경으로부터 이것이 작가의 상상으로 그려진 것임을 강조하는 듯하다.



한승재(김도경) 작가 (하-12)

마을 사람들에게 심터가 되어주는 버드나무에 대한 묘사가 드러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판돌의 죽음과 신사 준공의 시간이 꽤 되었음을 보여주는데, 한승재 작가는 고된 현실 속 심터가 되는 버드나무를 모노톤으로 드로잉 하여 일제의 탄압 속에서 아슬하게 흐른 세월과 지친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한승재(김도경) 작가 (하-336)

자신의 삶을 탄탄하는 벽순의 대사를 통해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 장에서 서술된 '새롭게 탄생하는 땅'은 벽순의 삶이 고되었으나 그녀가 지켜온 신념 덕에 변화할 마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승재 작가는 그런 의미를 암시하는 문장만을 남겨 마을의 독립, 나아가 대한 독립을 향한 길을 표현하였다.



황현호 작가 (하-218)

안목수의 투서에 의해 수감된 벽순이 고문에 시달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장면이다. 황현호 작가는 구절마다 눈에 띄는 단어들을 극대화하는 작업을 통해 객사에서 드러난 수도 없는 고문을 당해야 했던 일제강점기의 비극적 현실을 표현하였다.

이태원 길을 잇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



이태원 길을 잇다

일시

2021년 2월 18일(목)
16시 30분 ~ 18시 30분 (2시간/회 운영)

장소

이태원 문학관 광장 내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897-8)

참여대상 및 인원

초등학교 4학년 ~ 성인 10여명

- 지역주민과 참여 예술가의 소망과 상상을 담아 함께 만드는 <칠곡 이태원길, 객사(客舍)의 길을 그리다> 상징물 만들기
- 참여 예술가와 지역 주민의 예술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문화 예술 거리 '이태원 길' 조성
- 협업을 통한 지역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의미 확장



운영 구성안

사전 작품 설치	
2월 15일 (월요일)	2월 16일 (화요일) ~ 17일 (수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가도 하단 시트지 부착 작업 - 펜스 방수 목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펜스방수 한판 설치 완료



주민프로그램 운영
2월 18일 (목요일) 16시 30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스트링 아트 작업



주민 참여 프로그램 완성 작품

프로그램 일정

구 분	시 간	소요시간	세부내용
오프닝	16:30 ~ 16:4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및 작업 설명 - 재료 전달
작품 제작	16:40 ~ 18:2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참여 및 제작 - 작품 완성
마무리	18:20 ~ 18:3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마무리 - 답례품 전달

나만의 선인장 만들기

주민 참여 프로그램



나만의 선인장 만들기

지역민들이 직접 문화예술에 참여하여 문화예술 거리를 인식하고 예술가와 소통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적 사고를 키움.
나만의 선인장 만들기 : 재활용 재료를 이용한 선인장 제작, 전시

일시

2021. 1. 28 (목) / 2. 2 (화)

이태원 문학관 (대구 광역시 북구 동천동 897-8)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안내 및 리사이클링 아트 소개

작가(시각예술가) : 설치조형물 제작

나만의 선인장 만들기

재활용품을 이용한 작품 감상 후 선인장 아이디어 스케치

나만의 선인장 만들기 2

선인장에 어울리는 재료 수집 및 제작

-일상 폐품이 예술로 재탄생 되는 수업을 통해 수강생에게 예술적 지식과 경험을 제공

-지역 주민이 직접 공간을 꾸미면서 지역 자긍심을 높이고, 수강생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수업을 늘려 더 많은 지역민에게 문화예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주민이 직접 작업한 작품을 이태원길 일원에 전시(PET 선인장, 리사이클 화분, 이태원길 그림)



리사이클 화분 만들기

주민 참여 프로그램



리사이클 화분 만들기

지역민들이 직접 문화예술에 참여하여 문화예술 거리를 인식하고 예술가와 소통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적 사고를 키움.
리사이클 화분 만들기 : 폐PET병을 이용한 리사이클 화분 제작, 전시

일시

2021. 2. 4 (목) / 2. 9 (화)

이태원 문학관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897-8)

리사이클 화분 만들기1

리사이클 작품 감상 후 화분 제작



리사이클 화분 만들기2

리사이클 화분에 식물 심기

-일상 폐품이 예술로 재탄생 되는 수업을 통해 수강생에게 예술적 지식과 경험을 제공

-지역 주민이 직접 공간을 꾸미면서 지역 자긍심을 높이고, 수강생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수업을 늘려 더 많은 지역민에게 문화예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주민이 직접 작업한 작품을 이태원길 일원에 전시(PET 선인장, 리사이클 화분, 이태원길 그림)



작가와 함께 하는 이태원길 그리기

주민 참여 프로그램



작가와 함께 하는 이태원길 그리기

지역민들이 직접 문화예술에 참여하여 문화예술 거리를 인식하고 예술가와 소통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적 사고를 키움.
작가와 함께하는 이태원 길 그리기 : 작가의 조형작품과 주민들이 직접 그린 이태원 길의 그림을 함께 전시하는 형태의 공동 작업

일시

2021. 2. 16 (목) / 2. 18 (화)

이태원 문학관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897-8)

이태원 길 그리기 1

이태원 길 일대에 버려진 소재들 사진 촬영 후 스케치

이태원 길 그리기 2

채색 및 완성. 완성된 작품은 사진촬영하여 아크릴 판에 인쇄 후 작가의 조형 설치물에 전시

※시각예술 작가의 프레임형 조형물에 주민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걸어 콜라보레이션 형태의 작품 전시

-일상 폐품이 예술로 재탄생 되는 수업을 통해 수강생에게 예술적 지식과 경험을 제공

-지역 주민이 직접 공간을 꾸미면서 지역 자긍심을 높이고, 수강생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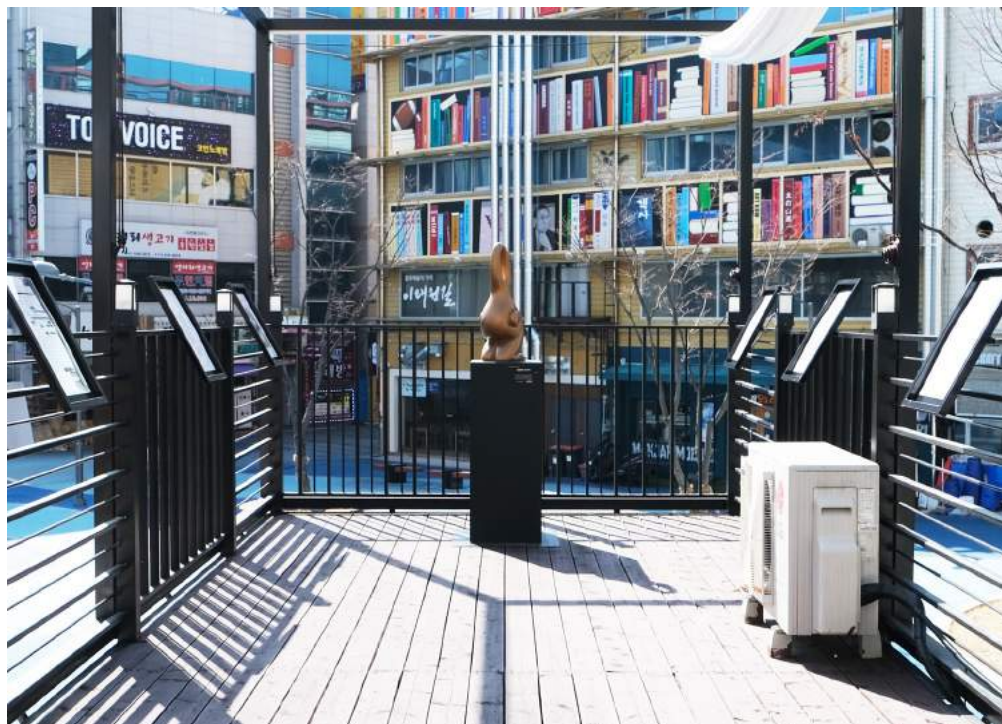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수업을 늘려 더 많은 지역민에게 문화예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주민이 직접 작업한 작품을 이태원길 일원에 전시(PET 선인장, 리사이클 화분, 이태원길 그림)



문화공간 조성

객사 드로잉展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문화공간조성'을 위한 공간으로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이태원문화관 2층 유휴공간을 선택하여 상설전시공간 및 문화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이 공간의 작품들은 공공미술프로젝트 객사드로잉展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으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호우 작가의 조각작품 및 아트 벤치 등이 설치되어 하나의 문화쉼터로 시민들에게 드리게 되었다.

니나노프로젝트예술가협동조합 작가 팀



Artist profile

곽라운

-2006 세계평화미술대전 IAEWP총재상 수상
-2018 KPAM미술제 부스 개인전
(예술의 전당,서울)
-The Fine Art 대구미술의 오늘전 참여작가
-삶-작업전 부스 개인전 (대구문화예술회관)
-Art Field-삶의 현장전 참여작가

김수미

-2015 대안공간 42 (울산) 외 개인전 4회
-2017 느린 걸음으로 (울산문화예술회관)
-2017 대구예술 생태보감 (대구예술발전소)
-2016 작은 사건들 2 (예술공간 <거인>)

나동석

-또 다른 가능성, 드로잉展 / 봉산문화회관
-네 연기가 내리는 받침돌 자욱하다 / 문화장
-대구예술생태보감 / 예술발전소
-술직히 말해서 / 남산역 광장
-청년미술페스티벌 / 보물섬

배은경

-대구미래대학 / 대구공업전문대학 / 영남
이공대학 산업디자인계열 그래픽강의
-2003-2012 삼성디자인협력업체
'마인드 온' 제작
-2016 수창프로젝트 전시

신주현

-수창, 청춘을 리노베이션하다 / 수창청춘맨션
-예술적 태도에 관하여 / 비영리공간 씽
-wrongorright , 항주 /
杭州富阳区天鸿美和院
-#forsummer , B커뮤니케이션 , 대구
-womb, space129 , 대구

윤광웅

-2011, 2014, 2016 대구 김광석길 벽화 개인전 2회
-2015 안산예술의 전당 <망각에 저항하기>
-2016 효목동 해맞이공원 벽화
-2019 ~ 법무부 웹캐릭터 디자인 개간지
<살아보이는창>일러스트
-2020 충주 덕은리 그린비네 벽화. 민노총 헬륨/일러스트
트. 도서 <뇌물외역사KICKBACK>. 도서 <팩트와데이터>
외 출판 일러스트 다수

구주림

-2017.02 KBS <6시 내고향> 방송삽화 작업
-2018.05 호남대학교 수시모집 홍보영상 작업
-2019.10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화원시장 꽃피다>참여
-2020.06 레진코믹스 <우리 상류연애 할까요>
연재 완결

김재은

-또 다른 가능성 드로잉전 / 봉산문화회관
-부유하는 공간 / 봉산문화회관
-Die unbekannten / 카셀 / 독일
-'보다'기획전 / 수성아트피아
-청년프로젝트 / 대구 exco

박상훈

-2020 대프리카전Ⅲ / 현대백화점 대구점 광장
-2019 대구 들안길 빛축제 / love of my life /
디자인 참여 / 대구 수성구청
-2017 한중일 국제보자기축제 조형물 / 디자인
참여 / 대구 삼성 창조 경제단지 / 대구문화재단

변수영

-2016 수창프로젝트 전시
-2018 대구단편영화제 디자인 참여
-2019 대구단편영화제 디자인 참여

여무웅

-2010~2020 개인전 7회
-단체전, 그룹전100여회 출품
-김광석 다시 그리기길 참여
-평화의 댐 벽화 참여
-대구 근대로 골목 벽화 참여

이경희

-제주 현대미술관 네트워크 교류전
<각별한, 작별한, 특별한>
-중국 충칭 Dimension Art Center 국제교류
프로그램
-우민아트센터 2019 주제기획전 <과정추적자>
-베를린 ZK/U residency 국제교류 프로그램

김명환

-수성구 빛 축제 참여
-참여 벽화 실적
김광석 다시 그리기길 / 평화의 댐 벽화
/ 대구 근대로 골목 벽화

김형철

-2013 한국-오스트리아 국가수교50주년행사 무대&
영상&음악 감독 / 국립 예술사박물관 / 빈
-2017 평창올림픽 홍보 미디어파사드 출품 /
기술감독 / 광화문
-2018 VEKTOR BERLIN / 베를린 갤러리 위크
엔드 / 베를린
-2020 젤른 사 익스테이 발간 / 대구

배규희

-제 5회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참여작가
-‘학습주제’ 최희진 개인전, 비영리전시공간 씽
참여작가
-2019 대구문화재단 스타트업 지원 선정작가
-‘옴트다’2, 갤러리온 참여작가
-‘in&out’, 범아아트스트리트 참여작가

손영복

-2008 개인전 / 대구 외 개인전 4회
-2020 영호남교류전 / 최북미술관 / 무주
-2020 ‘그랬듯, 모튼게 일상’ 전 / 엘갤러리
-2019 대프리카전Ⅲ / 현대백화점 대구점 광장

유취급

-제1회 개인전 (관촌갤러리, 서울)
-단체전, 삼, 잠재된의식과 자율적 표현전
(윤현궁 미술관, 서울) 외 30 여회 출품
-벽화제작 : 안동 이마트, 안동 유교 박물관, 대구
문화탐방거리, 남해 다랭이 마을, 부산 세관외벽,
대구 화교소학교, 대구 현대백화점뒤 영남대로

이민순

-2009 도쿄디자인페스타 가와이전 참여
-12회 대구단편영화제 일러스트작업
-호감을위한법칙, 오롯이혼자,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아, 열정 같은 소리 하네 등 북커버 작업
-현대백화점 h갤러리 어느날, 어떤순간 개인전
-현대백화점 지하 유리 설치일러스트 작업

이상현

-개인전 22회
-2020 ‘몽상가’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2019 ‘몸짓’ (토마갤러리, 대구)
-2017 ‘With’ (Kunsten Hojer, 덴마크)
-2015 Mills Pond House 갤러리 초대전
-국제조각심포지엄 11회 참여 (덴마크, 독일, 터키, 핀란
드, 대만, 뉴욕 등)의 그룹전 200여회

이호우

-2019 대구 들안길 빛축제 / love of my life
-2017 한중일 국제보자기축제 조형물/ 디자인
참여/ 대구문화재단
-2017 마비정마을 조형물 / 달성군청
-2010~2014 김광석 다시그리기길 참여

장재혁

-2013 51% 완전을 향해 가는 부분 참여작가
/ opisart / 서울
-2014 Moim. 어디 그 잘난, 낯짝 좀 보자 / 울산
-2018 VEKTOR BERLIN / 베를린 갤러리 위크
엔드 / 베를린
-2020 젤른 사 익스테이 발간 / 대구

최영지

-도서 <내 우주의 은하수가 되어볼래>출간
-서울 일러스트페어 전시 및 판매
-레진코믹스<고래> 연재
-타파스미디어 <yeongji's diary>연재
-엔제리너스,아웃백, 삼성물산, 마켓컬리
등과 협업 만화 제작

한승재

-2016 젠가 / 갤러리 선제 / 경상북도 철곡
-2017 ZERO / 문화예술회관 / 대구
-2017 POWER PACK / 대구예술발전소 / 대구
-2019 서울시립미술관 데이비드 호크니 전 스텝

김병호

<개인전 (1997~2014년 : 11회)>
9회 ~ 2010. 5 [Contact plus]
(아트런 스페이스-청주시기획)
10회-2013. 1 The secreat of Aura
(Project B Gallery기획)
11회 ~ 2014. 3 mosquito in the mirror(Space bar 기획)
외 단체전 100여회

김박보나

-2019 4년간의 기록,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20 Safety, 비영리전시공간 씽, 대구, 기획
-2020 어느 말지 않은 세계, 비영리전시공간 씽,
대구, 기획

이원오

-2019년 diffnposter2019 참여작가
-2020년 diffnposter2020 참여작가

인승임

-2018 단체전 / 한국조각가협회 대구지부 수성
아트피아 초대전 / 수성아트피아
-2019 단체전 / 달성, 조각을 꽃 피우다

정민규

-2020 인간 모형 / 대안공간 씽
-2020 We do not speak the same language / 대구예
술발전소
-2020 가창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2019 파리국제예술공동체(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입주 작가
-2019 부산은행 청년작가 미술대전 대상

최현석

-김광석 다시 그리기길 참여 / 기타 조형물 제작
-근대로의 여행 스텝프함 디자인 및 제작
-2016 북성로 주민협업프로젝트 공모전
[Made in 북성로] 장려상 입상
-2017 대구콘텐츠코리아랩 [브랜딩 프로젝트] 3위 입상
-2018-2019 북성로 축제 무대 디자인 감독

황현호

-2008 대구, 미술을 움직이다 / 문화예술회관
-2009 청년미술프로젝트 ‘욕망의 정원’
/ 구KT&G
-2011 A4 사강, 경희대 미술관
-2012, 2014, 2016 김광석 다시그리기길 참여
-2019 개인전 '노아이디어'

김영훈

-2012 '2012 ASYAAF' (문화역 서울284, 서울)
-2016 후지필름코리아 X-T2 PHOTO WALK 로타션
여행 - 베스트포토상 수상
-2017 'GAGA Eiffel Tower Effect' 공모 김영훈 개인전 -
관찰자의 기록(Observer notes) 展 (가가갤러리, 인사)
-2018 김영훈 개인전 '나는 가만히 서(彫) 있었다 展'
(대안공간 눈, 수원)

이지인

-2019 스테이스 아트페어, 아트페어 기획, 대구
-2019 사적인 공간, 전시기획, 비영리전시공간 씽, 대구
-2020 나의 예술 세계, 작가 아카이브 제작 기획, 대구
미술관, 대구
-2020 남겨진 죽음, 전시기획, 비영리전시공간 씽, 대구
-2020 차계남, 전시기획, 올갤러리, 대구

이은재

-2020 <2020 어울즈뷰> / 어울아트센터 갤러리 금호
-2020 <Let me introduce myself> 입주작가 프리뷰전
/ 대구예술발전소
-2019 2019 유망작가 릴레이전
<피에타> / 어울아트센터 갤러리 명봉
-2019 GLASS BOX ARTSTAR Ver.1 이은재 <검쳐진 장
면> / 봉산문화회관

임부열

-개인전 3회
-단체전 200 여회 출품
-대구 근대로 골목 벽화 참여
-김광석 다시그리기길 참여

최수환

-개인전 10회
-아시아의 지금 아라리오갤러리 /
서울, 북경
-JALLA전 도쿄미술관 / 일본
-대구미술의 어제와 오늘 수성아트피아
-출판작가 대통합전 / 영천

한수민

-2020 개인전 <안녕 난 요정> / 대구예술발전소
수창동 스킨오프
-2020 개인전<안녕 난 요정> / 수원예술공간 봄
-2019 단체전 서울미디어퀵버스 4회 전시참여
-2019 단체전 <EDITABLE:참식가능한>
/ 수창청춘맨션

김건예

-2001 마이스터슐러(Meisterschuelerin)로
임명, 지도교수 Rissa
-2002 뒤셀도르프 예술아카데미 졸업
-2020 개인전(아트스페이스 펄) 외 20회
-2018 'Not My Son' 빌리웁스, 대구
-2018 '현대인(today Human Being)', 수성아트피아, 대
구 외 100여회

강아림

-2016 2G Project <관찰과 탐구>, 난장 갤러리
-2017 Power_packed,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17 신조 미술 협회 협회 선정 작가전, 대구 문화 예술 회관
-2017 Faithfully, 로저아트갤러리, 성남
-2020 No more, Normal, 전시기획, 비영리
전시 공간 씽, 대구

칠곡 이태원길,

객사의
길을 그리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칠곡 이태원길, 객사의 길을 그리다>를 만든 사람들

주관	행복북구문화재단
작가팀	니나노프로젝트예술가협동조합
단체대표	김건예
총괄기획	김병호
대표작가	손영복
아카이브	김영훈 (북성로사진관)
행정	김주현

-도록제작-

발행인	이태현, 김건예
편집기획	니나노프로젝트예술가협동조합
도록편집디자인	한수민
아카이브 사진	김영훈, 손영복
인쇄기획	니나노프로젝트예술가협동조합
발행처	행복북구문화재단, 니나노프로젝트예술가협동조합
발행일	2021년 3월 20일
발행부수	600부

*이 도록에 실린 글과 도판은 발행인과 작가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전제할 수 없습니다.

2020 - 2021